

# 교정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공무원 문화교양지

2018.01

Vol. 500



## CHALLENGE

도전하는 삶! 500호를 맞이한 <교정>과 함께  
2018년 뜨거운 심장으로 새로운 도전을 꿈꾸자.



2018년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월간 <교정>도 새해와 함께 500호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그간 이뤄왔던 나만의 도전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월간 <교정>이 당신의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교정공무원 문화교양지  
교정 2018년 1월호 (통권 500호) 62권 1호  
www.corrections.go.kr

발행인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  
인쇄 서울남부교도소  
기획디자인 반디컴 02)2272-1190

월간 교정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또는 교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mojcor

카카오톡 아이디  
mojcor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하시면 친구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 Contents

- 04 **신년사**  
법무부장관 박상기, 교정본부장 김학성
- 08 **포토 이슈**  
법무부, 한국 상담심리학회와 업무 협약식 개최 외

### Colorful Think

- 10 **Theme Column**  
1월의 컬러, RED  
어제와 다른 내일을 만드는 도전에 대하여
- 12 **Theme People**  
인문학적 가치를 더한 교정의 품격  
이백철 교수
- 16 **Theme Talk**  
2018년, 서로를 향한 의리와 헌신으로 함께 달린다  
춘천교도소
- 20 **Theme Advice**  
목표를 이뤄내는 힘, 의지력 기르는 법



### Cheerful Life

- 22 **교정은 행복을 신고**  
'무드살롱'이 전하는 행복한 음악선물  
진천 법무연수원
- 28 **아빠! 어디가?**  
오늘은 우리 가족이 스키 금메달리스트!  
진주교도소 교위 장영진 가족
- 32 **어느 멋진 날**  
함께 그린 추억 한 페이지  
대전교도소 이윤미 간호서기, 박중우 교위, 양지윤 간호서기
- 34 **패밀리 프로젝트**  
아이의 겨울방학을 함께 채우다
- 36 **습관의 건강학**  
까칠한 니트, 당신과 잘 맞나요?
- 38 **교정 글마당**  
정우성 교위, 신희식 교위



### Correction Story

- 42 **교정리포트**  
교정공무원의 직업정체성이 직업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48 **지상강좌**  
헌법 & 교정학
- 52 **교정뉴스**  
본부 소식 & 일선기관 소식
- 60 **교정 스타그램**

※ 교정카툰은 더 멋진 모습으로 2월호에 게재됩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다시 한 해가 가고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영민함과 충직함의 상징인 개의 해를 맞이해, 여러분 모두 뜻하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촛불혁명’으로 표현되는 현대 한국사에 기록될 중요한 역사적 시간이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 이은 새 정부의 출범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실현을 향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법무·검찰은 헌법가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 개혁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 적폐청산을 위한 수사를 철저히 하여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복원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사건 발생의 한 책임이 법무·검찰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기반성과 재발을 막기 위한 혁신의 자세가 필요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수처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자기반성과 제도개혁을 향한 법무·검찰의 진정한 변화의 신호에 해당합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견어내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아울러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제네바에서 열린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에 참석하여 새 정부의 인권증진 계획과 의지를 명확히 하는 등 인권 주무 부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2018년에는 새 정부의 인권정책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각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공존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의 이와 같은 개혁과 변화의 움직임은 여러분의 열의와 동참으로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올해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적폐청산과 개혁작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높게 도약해야 합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서 한반도 평화와 지구촌 화합을 일궈내는 축제의 자리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북한정세와 북한의 계속된 도발위협이라는 어려운 안보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가계부채와 청년실업 그리고 소득 불평등에 따른 빈부격차가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언제나 어려운 여건에서 희망을 찾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저력을 발휘했기에 또다시 앞으로 전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법무부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정의’, ‘공정’, ‘인권’이라는 목표실현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가족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다시는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를 비롯하여 금융범죄,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패범죄 척결에 역량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또한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법무·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합니다.**

법무·검찰은 법질서의 수호자이자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핵심부서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올해도 법무부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법무정책을 더욱 전문화하고, 검찰을 한 단계 발전시켜 국민의 입장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는 법무정책을 수립하고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검찰이 중요범죄 수사 및 인권옹호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선진국형 검찰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법무·검찰이 잘못된 과거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과거사 진상규명을 적극 지원하고 후속 조치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셋째,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새해가 되어야 합니다.**

범죄는 불가피한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범죄 원인은 개인적, 사회적 원인이 개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범죄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세상에 나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해회복을 위한 기관의 증설과 피해자 지원도 계속 확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약자인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수용시설의 과밀화 해소, 치료감호소 개선 등 처우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더욱 두터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 개선에도 노력합니다. 따뜻한 법무정책이 사회 곳곳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열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통을 중시하는 사람 중심의 법무행정을 펼쳐 나갑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업무방식을 혁신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등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업무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국민 중심의 법무행정을 수립하려는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법무·검찰 구성원 상호 간에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려는 자세와 상급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가짐이 전제조건입니다. ‘나의 말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직을 병들게 합니다. 상급자의 경험이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고 상급자의 판단이 언제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구성원 간의 진정한 소통과 존중이 결국 국민들께 믿음을 주는 법무행정을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우리의 힘을 모읍시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대회가 아니라 평화에 기여하는 축제이자 인류 유산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드높이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드문 기회입니다. 법무부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출입국관리와 테러방지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오는 18일 예정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개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여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통합의 장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희망과 기대감을 갖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희망을 각자의 마음속에 새기고 치열하게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량과 의지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 2. 법무부장관 박상기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2018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교정가족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한 해 국민적 열망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으며,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구속과 함께 과밀수용 문제 또한 심화되는 등 교정은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웠던 상황임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준 직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낼 수 있었습니다. 교정가족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교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인력을 증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탈모 구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권위주의적 직장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신·증축을 지속 추진하고 단기 여자 수형자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등 수용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와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수용환경 개선과 의료주우 향상을 통해 인권과 원칙이 조화되는 수용관리 환경 조성에 매진하였으며, 동기 없는 범죄 및 정신질환 수형자에 대한 전문 치료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출소예정자에 대한 취업 지원 및 가족관계 유지 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실효적·실질적 교정교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토요일 집견 예약 필수 제도의 도입, 교정민원콜센터 운영을 통해 민원현장 중심의 대국민 서비스를 추구하였으며 교정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TV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를 적극 지원하여 긍정적이고 실제적인 교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남다른 사명감과 열정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그간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애써 주신 교정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정가족 여러분!  
교정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행정수요는 복잡성을 더해 가고 있으며 국민들의 교정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교정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직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구성원 상호 간 신뢰와 융화가 없다면 결코 그 조직은 행복할 수 없을 것이며,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결국 조직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부적절한 권력 행사나 상급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의 문화는 우리 조직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가장 큰 병폐입니다. 우리 직장문화 곳곳에 남아있는 구시대적 관행과 불공정을 청산하여,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지켜 갑시다.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직원들에게 고통을 부과하는 많은 사고는 결국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교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법과 원칙에 충실한 근무 자세를 견지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교정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변화를 이끌며 미래를 선도해 나갑시다.

수용자를 가두기만 하는 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실질적 사회복귀지원 시스템과 과학적 교정시스템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본부, 지방청, 일선 교정기관이 합심하여 앞으로 나아갑시다. 미래 지향적인 조직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책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범방지 역량을 강화해 나갑시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수용자의 성공적 사회 복귀와 재범방지는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입니다. 수형자는 언젠가 사회로 복귀해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수형자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해 이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 앞에 힘찬 출발을 다짐합니다. 황금 개의 해를 맞아 견마지로(犬馬之勞)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믿음직하고 친근한 교정으로 우뚝 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세로 높은 법치를 이루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랑의 손길로 상처와 고통을 어루만지는 '행복한 교정'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 번 올 한 해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 1. 2. 교정본부장 김 학 성



# Photo Issue

교정본부는 선진화된 교정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 중이다.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달려온 이달의 교정 현장을 살펴보자.

## 법무부, 한국 상담심리학회와 업무 협약식 개최

지난 12월 6일 김학성 교정본부장, 신희천 한국상담심리학회 학회장 직무대행, 법무부 및 한국상담심리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와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업무 협약식이 개최됐다. 이번 협약식은 우수한 상담 인력 수급, 전문 교육 인력 지원 그리고 각종 업무교류를 위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전국 교정기관 안팎의 전문가가 상담을 지원하고, 교정 공무원의 상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나갈 계획이다.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 2017년 하반기 하트세이버 시상식 개최

지난 12월 27일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하트세이버 시상식이 열렸다. 하트세이버는 신속한 응급조치로 인명을 살리고 사망사고를 방지한 직원에게 주어지며, 이날은 최우수 하트세이버에 선정된 진주교도소 이동률 교사를 비롯해 진주교도소의 김중우 교위·김용삼 교위·김명섭 교도, 부산교도소 이준호 간호주사보, 안양교도소의 한병욱 교사·임상수 교사·정인혁 교도 등 총 8인이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함께 교정본부장 격려금, 지방교정청장 표창, 포상휴가 등이 부여됐다.



2018. JANUARY



## 어제와 다른 내일을 만드는 도전에 대하여

삶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몇 가지 경계선이 있다. 성년이 되는 스물, 고독을 알게 될 것만 같던 서른 그리고 새로운 365일이 시작되는 1월 1일 또한 그렇다. 한껏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도 잠시, 막상 당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경계를 만들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 특별함이 불어오는 곳, 마음

TV 광고 속 할아버지가 인자하게 웃으며 이런 말을 했다. "마음을 주는 건 전부를 주는 거란다"라고. 우리의 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아서 새롭고 특별한 시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가짐부터 달리해야 한다. 하지만 할 일과 의무로 가득한 하루 속에서 새로운 계기를 마주치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달력 속 숫자에 기대어본다. 1월이라고,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아무 날도 아닌 1월의 하루는 어떤 이에게 새로운 도전이 또, 어떤 이에게는 뜨거운 열정이 된다. 신년맞이 대청소 중 손에 잡힌 수첩 속에서 '뒤라도 한가지, 운동 시작하기' 혹은 '남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기', '이번에는 꼭! 다이어트 성공하기' 같은 메모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당장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날씨는 2018년 1월, 그 기분 좋은 울림이 작은 시작을 응원할 테니 말이다. 그렇게 각자 다른 계기로 1월에는 저마다 마음속 도전의 빨간 불씨가 일렁인다.

### 도전과 열정, 빨강의 온도

빨강은 도전과 열정을 상징한다. 컬러가 지닌 힘 덕분인지 붉은 유니폼을 입은 스포츠 팀은 경기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통계 결과도 있다. 이 색이 도전과 열정, 행복한 상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미국의 학교들은 격정적인 활동이 필요한 장소, 인지적 자극이 필요한 장소의 인테리어에 종종 붉은색을 사용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도로 위 잠시 멈춤을 뜻하는 신호등도, 기계의 사용을 중단하는 파워 버튼도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빨강은 역동적인 움직임과 제어를 함께 품고 있는 것이다.

빨강의 성질은 지혜롭게 힘을 분배하는 노력가와 닮아있다. 때를 살피어 한껏 역량을 발휘하다가도 다음 도약을 위해 잠시 멈춰 숨을 돌릴 줄 아는 셈이니 말이다. 한 해에 대한 계획도 이와 같아서 성과에 대한 욕심으로 무리한 일정을 세우기보다, 노련한 완급 조절로 적절한 시기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편이 현명하다. 정확한 박자에 도움닫기를 하는 사람이 멋지게 도약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이다. 목표를 세우고 성공하는 2018년을 만들기 위해 올해는 설계하고 기록하는 나만의 매체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노트나 스마트폰 그 어디든 하루, 한 달, 일 년의 계획을 세우고 매일 목표에 가까워지는 자신을 보며 빨강의 참뜻인 '행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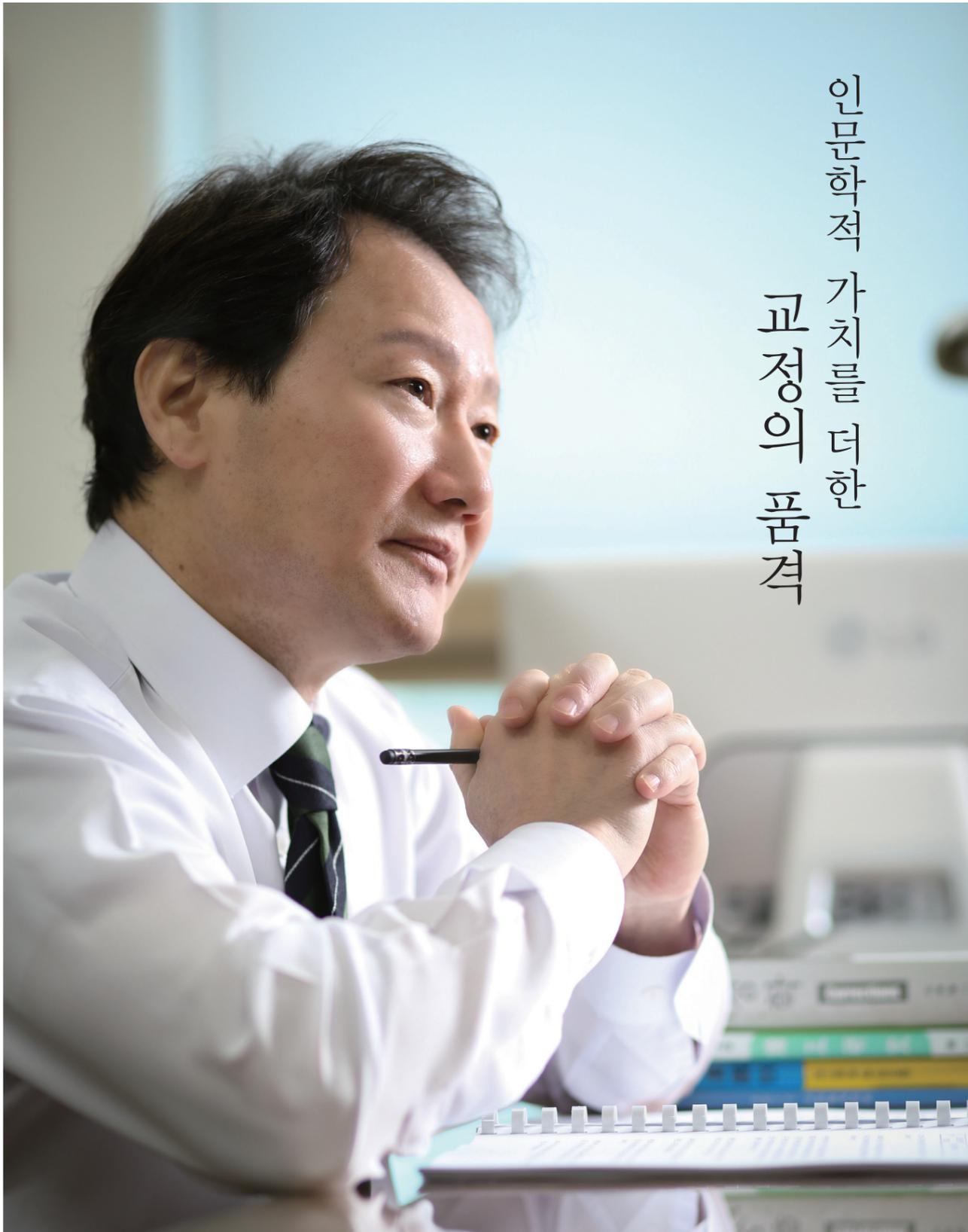
# RED

1월의 컬러

### 깨알 지식

#### 'about RED'

빨강의 역사는 '고귀함'과 얽혀있다. 왕족의 복식을 떠올릴 때 붉은빛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도 같은 이유다. 과거 염색기술이 덜 발달했을 때, 순수한 빨강의 천을 얻으려면 터키나 이집트의 수입품인 명반이 필요했고, 원료도 연지벌레, 꼭두서니 식물 등 다루기 쉽지 않은 것들이었다. 그 희소성은 지금도 상징으로 남아 귀한 손님을 맞는 길에 선명한 붉은 빛의 천을 깔고 있으며, 전 세계 국가 중 80%는 디자인에 붉은색을 사용한다.



인문학적 가치를 더한  
교정의 품격

이백철 교수는 학자다. '교정'을 하나의 고유한 학문영역으로 정립하기 위해 읽고 쓰고 연구하고 가르친다. '교정'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그의 가장 큰 배움터다. 수용자·교도관과의 소통, 그들의 상황과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교정의 품격'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이백철



교정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학문

“‘교정’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학문입니다. 안전한 사회,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기반이 되는 학문이죠. 그간 우리 사회는 교정, 교정학에 대한 인식이 미진했던 편입니다.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의 하위 학문쯤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다수였죠. 교정학은 사실 그 자체로 독립적인 학문이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학문입니다.”

이백철 교수의 연구 목적은 명료하다. 교정학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교정학을 품격있는 학문으로 정립해나가는 것. 더 나아가 학문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교정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백철 교수는 ‘공권력을 가진 다른 기관에 비해 교정기관, 교도관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교정기관을 단순히 ‘사법기관의 결정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역할’로 보는 인식을 바꿔나가기 위해 교정의 학문적 기반을 세우고, 교정기관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고. 이 생각을 바탕으로 2007년 아시아교정포럼이 창설되었으며, 이백철 교수는 이 단체의 이사를 맡고 있다.

“아시아교정포럼의 학문적 목표는 교정학을 법학이나 형법의 아류 학문이 아닌 고유한 학문영역으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문학, 사학, 철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교정과 인문학의 만남을 시도했죠. 그렇게 교정인문학을 창설해 10년 동안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교정포럼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인 ‘교정담론’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선정되어 고품격 학술지로 평가받고 있죠.”

치열하게 학문을 연구하는 한편, 후학양성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26년간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우리나라의 교정 변화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워내고 있다.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학문에 담다**

이백철 교수가 '교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만 유학 시절부터다. 고려대학교에서 중문학을 전공한 후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80년대 초 대만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밟게 된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의 법학을 배우다 보니 서구세계의 법학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 형사 사법학(Criminal Justice)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교정, 보안, 법의학 등 다양한 세부 전공이 있었는데 그 중 '교정'에 뜻을 세우게 된 것은 한 교수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죠.”

6·25전쟁 후 한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신부로 사역했던 미국인 교수. 10여 년 동안의 사역을 마친 후 고국에 돌아와 심리학을 공부하고 미시간주립대학의 교수가 된 특별한 이력의 소유자다.

“탄탄한 이론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던 다른 교수님과 달리, 이 교수님은 뭔가 허술하했어요.(웃음)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었고, 이성적 사고보다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에 관해 이야기하셨죠.”

논문 편수를 논하며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백철 교수는 그 따뜻한 가르침이 참 좋았다.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학문에 담아내려는 노력을 존경했고, 그 시절의 배움은 지금 이백철 교수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교도소 담벼락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는 것**

이백철 교수가 학문의 연구와 가르치는 일을 병행하면서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은 현장을 진지하게 느끼는 일이다. 미사를 통해 사형수들과 인연을 맺어온 지도 벌써 10여 년이 지났다.

“25년 전부터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를 통해 수용자들을 만나오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는 매월 넷째 주에 사형수들과 미사를 드리고 면담을 하고 있어요. 교도소에 수용된 이들이 사회적으로 마이너리티지만, 사형수들은 그중에서도 마이너리티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 스스로 제 자신을 성찰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죠.”

이백철 교수는 사형수들을 만나는 시간을 '봉사'가 아닌 '은총'이라고 표현했다. 젊은 시절부터 교정학의 전문가로 교도소를 방문할 일이 잦았고, 그때마다 대부분의 시간을 소장실에서 보냈다. 교정의 실태를 논하고 학문을 나누다가 수용자들을 만났고 사형수들과 시간을 보내며 절로 겸손해졌다. '교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으로 느꼈고, 교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게 됐다. 그저 수용자를 '관리'하는 규칙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문학적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형수들을 만나며 깨달았다.

“수용자와 피해자, 그들의 가족과 교도관의 역할까지 하나의 단위로 보는 학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사형수와의 만남이었어요. 교정의 사회적 역할과 시스템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됐고요.”

“우리는 좋은 사람이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 교도소의 담벼락을 기준으로 사람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백철 교수는 자신에게 끊임 없이 질문했고,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공범 의식과 나눔 정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교도소 안에는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죄를 짓게 된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그들의 행동은 범죄고 대가를 치러야 하죠. 하지만 내가 그런 상황 혹은 환경에 놓였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품격'있는 교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

“잘못'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 최근 아시아교정포럼이 서울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인문 교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는 규제와 함께 스스로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합니다. 단속과 처벌의 틀을 넘어 성찰, 회개, 사랑, 용서의 간접적 체험이 자신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음미하도록 돕는 겁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들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이백철 교수는 한 사람의 교도관을 교육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가까이에서 교정과 교화를 담당하는 교도관만큼 수용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들은 없기 때문이다.

“교정은 수용자가 사고 없이 형을 잘 마치고 나가도록 관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정'은 교도소 관리 학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해자가 있다면 피해자가 있고, 그들의 가족, 이웃 그리고 그들이 속한 사회가 있죠. 교정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용자가 들어올 때부터 이들을 둘러싼 환경을 파악하고, 어떻게 교정 교화해서 조기에 가석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무탈하게 형의 기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정을 통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가석방'이야 말로 교정의 꽃이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교정기관이 사법적 결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는 권한 말입니다. 무조건 가석방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정의 목적이 '관리가 아닌 사회 복귀'를 위한 '변화'에 맞춰질 때, 자연스럽게 가석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5년형을 다 채우고 나가 또다시 죄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교정을 통해 3년 후에 교화된 모습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관리 위주의 교정과 보수적인 가석방은 과잉수용 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교도관들의 과잉 업무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교정과 보호관찰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가석방 후의 생활도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교정은 교도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출소자들에게 창업비용 및 교육, 멘토-멘터 제도를 제공하는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기쁨과 희망 은행'이 좋은 사례다.

“저는 교정인문학을 주창하는 학자로서 교정학이 범죄인의 사후관리나 처우의 틀을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동적 학문으로 태동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연구할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자와 교도관을 대상으로 인문 교양 교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교정이 담장 안뿐 아니라 담장 밖 사회까지 변화시키는 '품격'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백철 교수는 500호를 맞이한 '교정'에 대한 축하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먼저 교정 5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정지가 성장하는 모습을 응원해온 독자로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현장에서 일하는 교도관들의 이야기, 더 나은 교정을 위한 다양한 생각들이 좀 더 밀도있게 담겼으면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응원하는 애독자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춘천교도소**

춘천교도소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교정기관이다. 오랜 세월만큼이나 수많은 이야기와 사연을 담고 있는 이곳은 남다른 인화단결과 잘 잡힌 교정질서로 그 위상을 면면히 드러내고 있는 곳.

2018년 첫 번째 기관으로 춘천교도소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2018년,  
서로를 향한 의리와 헌신으로  
함께 달린다



**끈끈한 의리는 우리의 전통**

춘천교도소는 대한제국 말기인 1909년 2월에 서대문형무소의 전신인 경성감옥 산하의 춘천분감으로 개칭했다. 이후 1961년에 춘천교도소로 개편, 1981년 7월에 현재의 위치에 자리를 잡은 오랜 관록의 교정기관이다. 오늘 춘천교도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총 5명. 김진태 교감, 김정섭 교위, 김경수 교위, 정민수 시설주사보, 안형조 교위다. 그 중 김진태 교감은 이곳에서만 28년째 근무하고 있는 춘천교도소의 산증인이다.

“춘천교도소는 280여 명의 직원, 890여 명의 수용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S3일반경비시설급으로서 수용질서가 잘 잡혀있고 직원들의 인화단결이 매우 좋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강원도 특유의 깨끗하고 소박한 인심 속에서 직원들이 나누는 끈끈한 의리는 우리의 전통이자 자랑입니다.” 춘천교도소의 남다른 끈끈함은 같은 지역 출신이 밀집된 덕분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경계나 배타심 없이 상대를 감싸 안는 춘천교도소 사람들의 마음씨다.

“선배들의 전통을 후배들이 잘 이어받아 가꾸는 것도 우리 소의 자랑입니다. 뒷세나 지역색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선후배가 좋은 호흡으로 기관을 이끌어 가는 거죠. 이곳으로 전근을 왔다가 정착하겠다고 하는 직원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첨단 시설로 더 쾌적해지다**

춘천교도소의 사람 못지않은 자랑거리는 시설이다. 이곳에 자리 잡은 지 35년이나 됐기 때문에 시설이 낙후됐을 거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이곳은 최신시스템 기반의 시범사업이 종종 진행되는 기관이다. 그 자랑을 위해 정민수 시설주사보가 바쁜 와중에도 자리에 함께했다.

“지난 2012년에 서울청 내에서 난방공사를 처음 시도했습니다. 영하 20도가 되면 수도가 얼어붙고 난방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한 거죠.”

CRPT팀의 김경수 교위가 이야기를 거든다. “춘천은 교정시설 중 최북단에 속하는 시설인데, 추운 날씨에 수도가 얼어버리면 수용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최신 난방 시스템을 적용한 후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 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원활하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다. 정문 자동화 시스템 설치를 비롯, 직원과 수용자를 위한 컬러테라피, 수용자 목욕시설 리모델링, 출정과의 대



기실과 직원 준비실 신설, 직원들을 위한 탈의실 옷장 교체 등 춘천교도소는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직원과 수용자를 위한 시설 확충과 신설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도는 민낙기 소장님께서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시설개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하나씩 개선해나가는 재미와 보람이 컸고요. 새로 오실 소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 들인 결과가 좋으니 기쁘고, 직원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행복해요.” 정민수 시설주사보의 말에 모인 직원들 모두가 끄덕인다.

### 축구 강호, 우리의 자부심

춘천교도소에는 또 하나의 자랑이 있다. 막강한 축구 실력으로 전국을 호령하는 축구팀이 바로 그것이다. 축구동호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보안과의 김정섭 교위가 말을 잇는다.

“전통적으로 춘천교도소는 축구 강호입니다. 그간 저희는 장관기 2회 우승, 서울청 4회 우승 등을 비롯, 강원도 지역에서 열리는 축구 대회에서도 매우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는 또 “동호회의 기본은 직원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에는 태권도, 유도, 검도, 심지어는 기록 보유자가 있는 마라톤 등 다양한 동호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통해 다진 친목으로 근무 중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서로 자문을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어요”라며 장점을 늘어놓는다.

총무과의 안형조 교위는 여기에 하나 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약하는 춘천교도소의 모습을 자랑했다.



“저희는 시민들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2011년에 결성한 나눔봉사회를 통해 성금을 모아 어려운 형편의 초등학교생에게는 장학금을, 수용자에게 피해를 입은 분께는 정기적 지원을 하고 있죠.”

춘천교도소는 다양한 얼굴을 가진 교정기관이다. 서로를 향한 배려와 헌신으로 운번 휴무를 80% 가까이 지키고 있고 다양한 동호회 활동으로 업무의 능률을 높이는 등 직원들 스스로가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에 충실하되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수용자 관리까지 반듯하게 해내니 “춘천교도소에서 온 직원은 일을 잘 한다”라는 입소문이 날 만도 하다. 올 한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더불어 일하고 있을 춘천교도소 사람들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 Theme Talk



김진태 교감



김정섭 교위

### 2018년 춘천교도소의 도전!

2018년도 춘천교도소가 수용질서가 잘 확립된 기관, 더 나아가 지금처럼 선후배가 잘 어울리는 화목한 직장 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재, 자살 등의 교정사고가 없는 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 모두가 건강하길 소망합니다.

▶ 교정 500호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춘천교도소의 수용질서가 잘 잡혀서 지난해처럼 즐겁게 출퇴근할 수 있는 직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내년도 장관기 대회에서 우리 춘천교도소 축구 동호회가 꼭 우승의 목표를 달성하고 싶습니다!

▶ 교정 500호를 축하합니다. 교정인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형조 교위

우리 소 직원들과 가족이 모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2018년은 자기개발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싶습니다. 가족을 위한 시간, 체력단련을 위한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 교정지를 보면 우리 교정기관이 보입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소식 부탁드립니다.



김경수 교위

업무적으로 지난 한 해는 자살이나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지난해의 무사고 분위기를 2018년에도 이어받아 끝까지 좋은 과정과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헬스장을 리모델링해주신 소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교정 500호를 축하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교정인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정민수 시설주사보

지난 2017년은 춘천교도소에 정말 많은 시설 개선이 이루어졌던 한 해였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될 때마다 직원들의 반응을 물어보면서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도 더 나은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 500호를 넘어 5000호까지 응원합니다.

## 춘천의 가 볼만한 곳

### 소양강댐

춘천을 이야기할 때 소양강댐을 어찌 빼놓을 수 있을까. 강원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와 신북읍 천전리 사이에 있는 다목적 댐인 이곳은 높이 123m, 제방 길이는 530m에 달하는 댐으로 사계절 내내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춘천의 명소이다. 청평사행 유람선을 타고 소양강을 건너다보면 탁 트인 절경에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인근에 즐비한 달갈비와 막국수 가게는 방문객들의 입까지 만족시킨다. 얼마 전에 새롭게 문을 연 스카이워크 위로 덧신을 신고 걸으면 허공에서 걷는 아찔한 기분도 느낄 수 있다.



### 남이섬

드라마 <겨울연가>덕에 국내를 넘어 아시아의 관광명소로 떠오른 남이섬은 365일 연인과 친구, 가족 단위 관광객이 몰리는 장소다. 2016년 기준 연간 외국인 관광객 130만 명을 포함, 전체 관광객 숫자가 330만 명이라니 그 규모가 대략 짐작이 간다. 자작나무숲, 메타세콰이어길 등 사진 찍기에 그만인 포인트가 많으며 숨은 일출 명소로 손꼽히기도 한다. 내부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고 도서관, 맛집 등 다양한 시설과 숙박할 수 있는 펜션도 있다. 작은 섬이라 몇 시간만 둘러보면 충분히 즐길 수 있다.

# 목표를 이뤄내는 힘, 의지력 기르는 법

참고 : <의지의 재발견>, 북모닝CEO 편집팀 著

## 트릭 대신 노력을 사용한 마술사

미국 출신의 마술사 데이비드 블레인은 트릭 없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다양한 도전을 해왔다. 뉴욕 타임스퀘어에 얼음 덩어리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63시간 버티기, 그 어떤 음식도 섭취하지 않고 44일간 상자에 갇혀있기, 거대한 유리 원통 안에서 17분 4초 동안 숨 쉬지 않고 버티기 같은 것들 말이다. 그는 선천적으로 특별한 능력을 타고난 것일까? 그렇지 않다. 그는 “운동으로 근육의 힘을 기르는 것과 같은 원리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의지력을 단련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한다.

데이비드 블레인은 ‘호흡 참기 쇼’ 공연 1년 전부터 물속에서 숨 참기 훈련을 반복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다. 훈련의 영향으로 찾아온 끔찍한 두통을 견디지 못해 병원에 실려 가는 일도 있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신체를 통제하기에 이르렀다. 심장박동수가 정상치를 벗어나 1분에 70회, 60회, 결국 50회 이하까지 떨어지는데도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겨우 몸이 들어가는 상자 안에서 44일을 버티고, 17분 넘도록 숨 한번 쉬지 않는 일, 과연 가능한 것일까? 놀랍게도 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 사람이 있다. 그의 성공 비책 ‘의지력 훈련’을 통해 우리도 새해 목표를 끝까지 실천할 힘을 길러보자.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 행동 통제의 기술

이것은 비단 한 사람의 선천적인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사회심리학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바우마이스터 교수팀은 의지력 강화 훈련에 대한 가설을 실험으로 뒷받침했다. 그들은 학생들을 세 집단으로 분류한 후 2주 동안 서로 다른 과제를 부여했다. A집단은 자세 교정, B집단은 섭취한 음식물 일체 기록, C집단은 긍정적 감정 유지라는 과제를 받았다. 세 집단 중 어느 집단이 가장 높은 과제성공률을 보였을까? 교수팀은 C집단의 성공률이 가장 높을 것을 가설했지만, 2주 후 정반대의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



A집단의 성공률이 가장 높았던 것이다.

이 실험은 의지력 강화에 정신 통제 훈련이 아닌 신체적 욕구 조절 훈련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반복적인 신체 단련이 정신적 근육까지 단단하게 다져준다는 뜻이다. 이 실험결과는 무기력한 날 중얼거리는 “의욕이 생기지 않아 어떤 일을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틀렸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접근이 옳다는 뜻이다. 무기력함은 새로운 일을 시작한 후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나면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럴 때도 됐지’, ‘내가 그렇지, 뭐’라며 반복되는 실패의 기억을 새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다르다. 스스로의 신체를 통제함으로써 정신적 목표까지 이룰 수 있다는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블레인은 이렇게 말한다. “특정한 일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설정한 후 성취하면서 조금씩 난도를 높여보세요. 성공의 기록은 다음 목표로 나아갈 힘과 여유가 되어줍니다. 그게 바로 훈련입니다. 끊임없이 전진을 반복하는 연습 말입니다.”

# WILLPOWER

성공의 기록은 다음 목표로 나아갈 힘과 여유가 되어줍니다.

# '무드살롱'이 전하는 행복한 음악 선물

## 진천 법무연수원

진천 법무연수원 교육생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 위로와 격려의 한마당

대강당 앞 로비가 교육생들로 북적거린다. 이제 막 긴 강의를 끝내고 쏟아져 나왔지만 밝은 표정이다. 교육 끝 무렵인 데다 오늘 저녁 음악회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라고 하면 과장일까? 차가운 겨울 공기와는 사뭇 다른, 훈훈한 공기가 실내를 가득 메우고 있으니 그 일원이 되는 것만으로도 오롯이 충만한 느낌이다.

오늘 '교정은 행복을 신고'가 찾아온 곳은 진천 법무연수원이다. 교정공무원에 걸맞은 소양을 갖추기 위해 두 달째 교육에 몰두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교정본부가 응원의 음악과 함께 찾아온 것이다. 오늘 음악회를 위해 특별히 초대된 가수는 무드살롱. 흥대는 물론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복고풍 밴드로 오늘은 리더 박상흠과 보컬 엠트루 씨가 이곳 진천까지 칼바람을 뚫고 내려와 주었다.



진천 법무연수원은 벌써 몇 주째 교육생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다. 교정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교육 프로그램을 빼곡하게 소화해낸 교육생들이 시험과 평가의 과정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바로 이때, 음악을 선물로 들고 찾아간 '교정은 행복을 신고'는 그 누구보다 반가운 손님이었다.

공연 시작 전 커피 케이팅 서비스가 로비에 구비됐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교육생들이 줄을 지어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씩 받아 들었다. 모처럼 누려보는 호사에 모두가 행복한 표정이다. 저마다 손에 커피컵을 든 채 강당에 자리를 잡고 앉자 사뭇 공연장 분위기가 난다. 먼저 교정본부 '교정은 행복을 신고' 팀에서 오늘의 행사를 간략히 소개했다. "힐링과 격려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담당자의 인사에 교육생들이 박수를 보내고 다시금 "교정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자 우레와 같은 환호성이 터진다. 말 그대로 가슴 뜨거운 현장이다.

### 가수와 관객이 하나 되다

— 큰 박수 속에서 무대에 등장한 무드살롱은 그야말로 잔뜩 긴장한 표정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공연을 해왔지만 각 잡힌 제복을 입은 관객 앞에서 노래하기는 처음인 것. 제복이 풍기는 카리스마가 있으니 제아무리 프로 가수라도 그 긴장이 조금은 이해가 간다. 무드살롱이 띄워준 첫 번째 곡은 'Fly me to the moon'이다. 제목을 밝히자 관객들이 탄성을 지른다. 기타반주에 맞춰 울려 퍼지는 노래. 관객들의 표정에서 스르르 긴장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이고 장내는 흥얼흥얼 가볍게 따라 부르는



대세홍 교육생



이 송 교육생



유지의 교육생



노랫소리가 가득 찼다. 이어진 곡은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사랑스럽고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가 끝나자 리더 박상흠 씨가 웃음을 감추지 못한다. "조용히 노래를 듣고 크게 손뼉 쳐주는 여러분의 반전 매력에 반했다"는 것이다. 칭찬을 받은 객석에서도 미소가 만개한다. 이어서 추억의 명곡 '담다디', 무드살롱의 곡 '사랑은 뽀뽀뽀'가 흘러나온다. 처음 들어본 노래지만 모두가 "뽀뽀뽀!" 후렴구를 신나게 따라 부른다. 관객이 참여하니 가수는 더 신명이 난다. 넷킹콜의 'LOVE'를 부를 때 참여도는 절정에 올랐다. "L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is for the only one I see, V is very, very extraordinary~" L.O.V.E. 알파벳 철자에 맞춰 모두가 크고 작게 손동작을 하면서 따라 부른 것이다. 흥겨움에 모두가 박수와 환호로 무드살롱에게 화답했다.

### 제 아버지도 교도관이셨어요

— 노래와 가벼운 이야기가 곁들여지는 시간, 리더 박상흠 씨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청송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청송교도소(경북북부교도소) 교도관이셨거든요. 청송은 제가 어린 시절 뛰놀던 곳입니다." 순간 "와아!" 하는 놀라움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상흠 씨 역시 아련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음악을 반대했던 아버지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응원해준다는 박상흠 씨의 이야기에 교육생들은 또다시 함성을 지른다. "제가 오늘 교정공무원 교육생 여러분들 앞에서 공연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는 그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린다. 객석의 뜨거운 반응에 무드살롱도 한껏 달아올랐다. 음악회 분위기는 모두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흥겹고 즐거웠다. 중간쯤 "이제 공연 시간이 20분 정도 남았다"고 고지하자 모두가 큰소리로 아쉬움을 표현할 정도였다. 공연 중 해프닝 또한 음악회에 재미를 더했다. '제주도 푸른 밤'을 부르려던 보컬이 두 번이나 키를 못 맞춰 결국 실패한 것. 때마침 밴드를 혼이라도 내는 듯 객석에서 요란한 재채기 소리가 터져 다들 박장대소했던 일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터였다. 밖에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난다고 아우성이지만 '루돌프 사슴코'와 '라스트 크리스마스'를 연달아 불러준 무드살롱 덕분에 교육생들은 한껏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취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시면 현장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코르 곡은 이문세의 '붉은 노을' 모두가 "난 너를 사랑해!" 를 목청껏 외치니 행복했던 오늘 이 자리의 열기가 절정에 달한다.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마지막에 '붉은 노을' 을 다 함께 부르니까 정말 신나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8주간의 교육이 쉽지않은 않았지만 동기들과 함께라서 즐겁고 알차요. 우리 277기 동기들 187명에게 소중한 한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세홍 교육생이 기분 좋게 인사를 건넸다. 이송 교육생도 이야기를 덧붙였다.

"두 달 동안 연수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은 처음이었어요. 교육 기간 동안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는데, 발령받고 일을 시작하면 수용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교도관이 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깜짝 선물을 주신 교정본부, 사랑합니다!"

교도관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교도관이 되는 데 성공한 유지의 교육생도 오늘 음악 선물에 감사를 표했다.

"8주 동안 교육은 힘들었지만 동기와 함께라 즐거웠어요. 시험 끝난 후 이렇게 후련한 마음으로 보면 시간도 오늘이 처음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서 힘을 얻어 발령 후 어머니처럼 훌



륭한 교도관이 되고 싶어요.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말이죠."

기타 한 대와 모두의 마음이 모여 빚어낸 마음 따뜻했던 시간. 들어올 때보다 한결 가까워진 모습으로 강당을 나서는 그들을 보며, 오늘의 깜짝 이벤트가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277기 교육생들 모두에게 진심 어린 응원을 전해본다.



MINI INTERVIEW

무드살롱 (박상흠, 엠틀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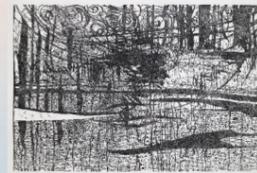
무드살롱은 1960년대를 모티브로 일제강점기 서민들이 불렀던 노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부르는 밴드입니다. 풀 밴드는 9인조이고 상황에 따라 2인조, 3인조로 활동하고 있어요. 오늘 공연 전에는 반응이 없으면 어쩌나 무척 걱정하면서 왔는데 모두들 밝게 웃으며 호응해주셔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덕분에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제복을 입은 관객 여러분도 멋있었고요. 연수원까지 와서 공연을 해보니 교도관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됐고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만났던 분들이 늘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음악을 통해 밝은 에너지를 전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전국 교도관 여러분 파이팅!

#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진천군 공연·전시

미술관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번잡스러운 바깥세상과 단절된 듯한 느낌이 든다.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 끝없이 이어지는 업무에 지쳤다면 지금 미술관에 가보자. 오랫동안 작품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새 잔잔해진 마음의 물결을 느끼게 될 테니 말이다.

## Healing Stage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기획전

나무 木  
눈 目  
생각할 瞞  
목판화展

김희진 / 안영찬 / 이연정 / 홍승혜

2017. 12. 20 ~ 2018. 2. 18

주최 진천군 주관 생거판화미술관

기획전 <나무, 눈, 생각할 瞞 목판화展>

장소 :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기간 : 2017. 12. 20 ~ 2018. 2. 18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에서는 오는 2월 18일까지 목판화전시회를 개최한다. 김희진, 안영찬, 이연정, 홍승혜 4명의 젊은 작가가 참여하는 이번 기획전에는 목판을 사용해 자신의 경험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창작한 판화작품 40여 점이 전시된다. 김희진 작가는 선의 형태로 표현한 감정을, 안영찬 작가는 원에 대한 정의를 목판화로 표현했다. 이연정 작가는 현대 도시의 이미지와 기억을 재구성해 상상의 'City'를 그려냈으며, 홍승혜 작가는 따뜻함에 대한 고찰을 색감, 종이 질감, 인쇄기법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구현해냈다.

2017 대청호미술관 하반기 주제기획전 <끝없는 밤>

장소 :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 전관  
기간 : 2017. 12. 22 ~ 2018. 2. 18

관람객에게 낯선 현대미술이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미스터리'라는 주제 아래 기획한 미디어아트 전시다. 현대미술은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미스터리 소설처럼, 작품 속에 숨겨진 작가의 의도를 수수께끼를 풀듯이 찾아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졌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뜻을 살려, 전시 제목 역시 영국 추리소설가 애거서 크리스티의 작품명을 차용했다고. 영상, 설치, 회화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미스터리의 세계를 만나보자.





# 오늘은 우리 가족이 스키 금메달리스트!

진주교도소  
교위 장영진 가족

### 겨울왕국으로 향하는 가족

춥다고 집에서 웅크리고만 있는 것은 겨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두 불이 빨개지더라도 밖으로 나가 겨울을 만끽해야 한다. 장영진 교위도 이 같은 생각으로 가족을 위해 스키체험을 준비했다. “가족에게 크리스마스 겸 새해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함께 스키에 도전하면서 추억도 쌓고 싶었고요, 제 나름의 서프라이즈 선물인 셈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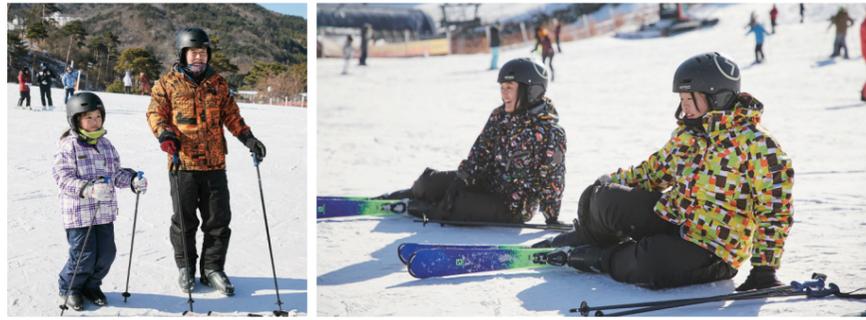
진주에서 두 시간을 달려 도착한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은 설원을 누비는 스키어들로 가득했다. 평소 추운 걸 싫어하는 아내와 아이들은 그 모습이 여간 신기한 듯 바라본다. 아내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리라 생각을 못 했어요, 스키를 타본 적이 없어서 이 풍경이 신기하기만 하네요”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그렇게 겨울왕국에 입성한 가족들이 첫 번째 한 일은 스키복 대여, 스키점퍼와 팬츠, 고글과 헬멧까지 착용하고 등장한 가족은 패션만 보면 초보자가 아닌 수준급 열혈 스키어로 착각할 정도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겨울, 열정만큼은 금메달리스트 못지않은 가족이 스키체험에 도전했다. 방학을 맞은 두 딸, 직장에 가사까지 훌륭히 해내고 있는 아내를 위해 장영진 교위가 <교정>과 함께 준비한 선물 같은 하루 속으로 떠나보자.

**늘 바쁜 아내에게 고마움을 담아**

장영진 교위는 평소 시간을 내 산행을 즐기며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네 식구 중 유일하게 스키 경험이 있는 구성원이다. 그런 장영진 교위가 가족 또한 그와 같이 활기찬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스키체험에 도전한 것이다. 매일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책상 앞에만 앉아있는 큰딸 민성이나 작은딸 민진이 안쓰러워 시간 나는 대로 함께 야외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날만큼은 아이들보다 아내를 위하는 마음이 더 컸다. 은행에서 일하는 아내 김남금 씨가 평소 커리어 우먼, 엄마 그리고 아내의 역할까지 소화하느라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탓이다. 장영진 교위는 “저에게 아내는 평생의 매니저 같은 존재예요. 회사 일에 아이들 돌보기만 해도 바쁠 텐데, 늘 저를 배려해주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취미를 즐기고 있지만, 아내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오늘 스키를 배우고 앞으로는 저와 함께 등산도 다니며 건강을 챙겼으면 해요”라며 그 속내를 내비쳤다. 남편의 마음이 고마운 한편, 아내는 처음 타는 스키가



무척이나 어려운지 처음에는 난처한 얼굴이었다. 맨 처음 가족끼리 연습을 해본 후 아내는 “오늘 스키를 제대로 탈 수 있는 건 둘째 민진이 하나 아닐까요?”라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비쳤다. 이 상황을 미리 내다본 것일까? 장영진 교위는 가족을 위해 스키강습을 신청해두었다. 준비성이 철저한 아빠 덕분에 스키가 낯선 가족은 스키 강습에 참여할 수 있었다.

**초보 탈출! 스키강습 프로젝트**

가족의 설렘을 안고 시작된 스키강습. 본격적인 강습에 앞서, 강사를 따라 몸부터 풀었다. 무거운 스키 신발에 두툼한 스키복까지 몸을 움직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강사의 동작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열심히 따라 했다. 몸풀기를 마치자 스키 장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스키는 스키 플레이트와 스키화, 바인딩, 스키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레이트는 바로 여러분의 발에 장착된 것을 말합니다. 바인딩은 스키신발을 플레이트에 고정하는 장치죠. 스키폴은 중심을 잡거나 추진력을 얻기 위해 쓰는 것이고요. 우선 스키화를 플레이트에 고정하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자, 따라 해보세요.” 장비 교육을 마친 후에는 넘어지기과 일어서기 동작을 배우기 시작했다. 초보자는 활강 도중 넘어지기 일쑤니,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넘어지기 위한 요령을 먼저 배워두는 것이다.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그 순간 조용하던 큰딸 민성이 크게 웃는다. 엄마가 넘어지는 모습이 재미있었던 모양이다. 넘어지기 수업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사람은 바로 작은딸 민진이다. 강사도 어린 민진의 빠른 습득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엄마 김남금 씨는 “우리 집에서 운동 신경이 가장 좋은 사람이 민진이에요. 저랑 큰딸은 운동에는 소질이 없는 편이거든요. 오늘 아빠와 민진이 가장 재미나게 스키를 탈 것 같아요”라며 웃는다. 그리고 보니 민진은 넘어지는 연습을 수차례 반복해도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넘어지기과 일어서기를 반복한 가족은 드디어 한 발 한 발 보행 연습에 들어갔다. 강사를 따라가는 모습이 마치 엄마 오리를 따라가는 아기 오리 같다. 그렇게 보행을 하며 언덕으로 올라간 다음은 드디어 활강 차례. 첫 타자는 아빠, 뒤를 이어 작은딸 민진과 엄마, 민성이 차례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한 차례 활강을 마친 가족들은 재미가 붙었는지 열른 다시 언덕으로 올라갔다 내려오기를 반복했다. 이때 민진이 활강하는 모습을 보곤 아빠 김영진 교위가 “살아있네!”라며 격려하자 민진은 “오늘 너무 신나요”라며 화답한다.

엄마와 큰딸 민성도 “배우기 전에는 겁부터 났는데, 강습을 받고 나니 이제 자신감 생겼어요”라며 환하게 웃는다. 민진은 물론 겁 많은 아내와 민성까지 스키를 제대로 즐기는 것을 보니 오늘 이벤트는 대성공이다. 다음에는 가족끼리 경주 내기를 해야겠다고 너스레를 떠는 아빠와 그 모습을 밝은 표정으로 바라보는 가족들. 오늘 설원에서의 하루가 장영진 교위 가족의 마음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본다.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스키학교**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에서는 스키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스키 기초이론부터 활강실습까지 배울 수 있으며 주간, 반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스키 초보 탈출을 꿈꾼다면 도전해보자.

위치 : 무주덕유산리조트 내 만선하우스  
문의 : 063-320-7348

‘아빠! 어디가?’는 교정에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2월호에는 ‘초콜릿 만들기 체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정>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느 멋진 날은 교직원 여러분께 문화관광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동료와 함께 보고 싶은 영화나 연극이 있다면 지금 이 때 메일로 신청해주세요.  
신청 : corred2015@naver.com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 함께 그린 추억 한 페이지

〈대전교도소〉 이윤미 간호서기·박중우 교위·양지윤 간호서기

때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동료들. 이 고마운 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었다는 이윤미 간호서기가 특별한 하루를 준비했다. 근사한 저녁과 영화 관람으로 동료의 의미를 되새긴 현장을 만나봤다.

저녁 메뉴를 고르는 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가족처럼 정을 쌓아가는 동료들과 모처럼 식사를 함께한다는 기쁨에 모두 들뜬 모습이다. 이윤미 간호서기의 신청으로 오늘의 이벤트를 만끽하게 된 대전교도소 의료과 직원들. 서로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물으며 신중히 메뉴를 선정한 이윤미 간호서기와 박중우 교위, 양지윤 간호서기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도란도란 대화를 이어갔다.

주문한 파스타와 스테이크, 자몽에이드까지. 근사한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지자 이윤미 간호서기의 눈이 반짝인다. 곧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연신 맛있다는 감탄이 터진다. “덕분에 호강한다.” 박중우 교위가 너스레를 떨자 이윤미 간호서기가 손사래를 쳤다. “늘 힘이 돼주는 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제가 더 기쁘다.” 감사와 화답이 오가는 식사 분위기는 백 점 만점에 백 점이다.

이들은 추억 하나를 더 쌓았다. 묵직한 감동을 주는 영화 〈1987〉을 관람한 것이다. 한창 화제인 데다, 주요인물로 교도관이 등장한다는 점도 선택에 한몫했다. “대통령이 관람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더라.” 직원들이 관람에 앞서 이야기꽃을 피우며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박중우 교위는 영화관에 들어서기 전 “이벤트를 통해 동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덧붙여 자기계발에 힘쓰며 현재 자리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대전교도소가 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교도소가 위치한 곳의 인구가 늘면서 다시 외곽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교정’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편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이 편견을 없애는 것은 역부족이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인식을 바꾸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수용자를 위해 올 한해 본격적으로 영어공부에 도전하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행복한 나들이를 통해 반짝거린 추억을 공유한 이들. 앞으로도 따뜻한 웃음만이 가득하길 기대해본다.



“앞으로 동료들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 이윤미 간호서기

수감 중인 환자를 돌보는 일에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박중우 교위님은 그런 제게 늘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예요. 양지윤 간호서기님도 같은 동료로서 제게 늘 힘이 되는 분이구요. 평소 이분들께 꼭 보답하고 싶었는데 이번 이벤트로 실현할 수 있어 너무 기뻐합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입장이라 여유가 없었는데 저녁 식사와 함께 가슴이 뜨거워지는 영화 한 편으로 제 일상에 활력도 찾게 됐고요. 마음 한편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동료들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도 커졌어요.



### 아이와 함께하기에 앞서

부모가 활동을 이끄는 데 명심해야 할 점은 아이들에게 명확한 동기 부여를 해주는 것이다. 이 활동이 왜 필요한지 아이가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다면 부모가 아무리 강요해도 잘 따라주지 않는다. 따라서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아이에게 충분히 알려줘야 한다.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말고 함께 활동 계획을 짜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독서토론의 경우라면 '책을 일주일에 1권 읽고 주말 2시간씩 함께 독서토론을 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지키기로 아이와 약속하는 것이다.



## 아이의 겨울방학을 함께 채우다

아이들은 겨울방학 동안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다. 학기 중에 체험하지 못한 경험을 통해 적성을 발견하고 재능을 키워간다. 또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추억을 남기기도 하고 새로운 목표를 마음에 새기기도 한다. 이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이의 시간을 함께하며 다양한 활동을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한다. 아직 아이와 보낼 시간들을 그려보지 못한 부모라면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아이에게 빛나는 겨울방학을 선사해보면 어떨까.



### 책을 통해 생각의 외연 넓히기

방학은 아이가 독서를 습관으로 만들기 가장 좋은 시기다. 이를 위해 아이가 책에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책을 선정해줘야 한다. 아이의 입장에서 함께 책을 고르고 읽어보면 더 좋다. 아이가 선정한 책을 다 읽었다면 독서토론을 진행하자. 등장인물과 상황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던져보고 서로 답을 들어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등장인물은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와 같이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아이는 질문을 스스로 해석하며 자연스럽게 상상력을 넓혀갈 것이다. 인물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된다. 또 부모는 아이의 생각과 가치관을 확실히 함으로써 올바른 교육과 지도를 해줄 수 있다.



### 스포츠로 느끼는 겨울의 열기

날씨가 춥다고 아이를 실내에만 머무르게 한다면 아이의 면역력 증진과 성장 발달에 좋지 않다. 겨울스포츠를 통해 아이가 활동적인 기운을 가질 수 있게 하자. 썰매, 스키, 스케이팅 등 아이와 함께 하기 좋은 겨울스포츠들은 모처럼 아이와 깊은 유대도 갖게 하고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우선 아이가 스포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도록 한다. 겨울스포츠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라면 아이와 함께 강습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다만 겨울스포츠에 있어 늘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안전이다. 튼튼이 쉬는 시간을 정해 따뜻한 음료로 몸을 녹이고 간식으로 체력을 보충해야 한다. 종목에 따라서는 방수 장갑, 무릎보호대,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것도 필수다.



### 생생한 테마의 현장으로 가다

각 지역단체, 박물관, 학습관 등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주제의 관람 및 체험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교육과 놀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제공한다. 테마도 다양하다. 공룡, 곤충에서부터 과학, 미술, 음악까지 각 분야의 프로그램들이 곳곳에 마련돼 있다. 부모는 아이가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해 선정하도록 한다. 이후 부모는 프로그램을 가기 전 주제와 관련된 사전지식을 습득한 후 아이가 질문할 경우를 충분히 대비한다. 프로그램을 관람, 체험하는 동안에는 아이와 대화하며 그때그때 감상들을 메모할 수 있도록 지시해준다. 이를 통해 아이는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마치면 아이에게 주제와 관련된 책을 소개해준다. 아이가 관련 지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까칠한 니트, 당신과 잘 맞나요?

겨울철 예민한 피부를 힘들게 하는 것은 비단 차가운 바람과 건조함만이 아니다. 우리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는 옷도 예기치 못한 피부의 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잘못된 의류 선택으로 각종 피부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이 있는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 무심히 입은 옷, 피부에 상처 주다

겨울철은 차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피부가 스트레스를 받기 쉬워, 각종 피부질환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계절보다 의류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의류 중 스웨터, 목도리, 베크머와 같은 니트는 표면이 까끌까끌하고 먼지가 잘 달라붙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으면 예기치 못한 피부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피부 접촉면이 붉어지며 부풀어 오르는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 환부를 긁으면 피부 짓무름, 출혈 등 2차 손상으로 이어진다.

니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정전기도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다. 사람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 정전기 자체는 그다지 문제되지 않지만 건선 환자나 기타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피부에 자극을 받게 된다. 따끔거림, 가려움, 염증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

피부 질환이 없더라도 정전기가 발생할 때마다 옷과 마찰이 심한 골반, 옆구리, 팔 등에 각질이 생길 수도 있다. 이때 피부로부터 떨어져 나온 각질은 섬유 조직 사이에 흘러들어 진드기의 먹이가 된다. 진드기를 흡입하거나 접촉하면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피부염의 발생 원인이 된다.



### 의류 관리로 자극을 최소화하라

피부가 예민한 사람이라면 니트를 아예 피하는 것이 좋지만 굳이 입어야 한다면 속에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소재 의류를 받쳐 입자. 되도록 염색을 하지 않은 흰색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새 옷의 경우에는 세탁한 후에 입는 것이 자극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사용 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 진드기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서식을 방지해야 한다. 행굼 시에 섬유유연제로 마무리하고 외출 후 정전기 방지 기능이 있는 스프레이 타입의 섬유유연제를 수시로 뿌려주면 정전기 방지에 효과적이다.

드라이클리닝을 한 경우라면 니트를 비닐에 보관하지 말고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 하루 정도 걸어둔 다음 입는 게 좋다. 화학 성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옷에 남아 호흡을 통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상처가 있는 부분은 공기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피부염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심해졌다면 차가운 물로 적신 수건으로 염증 부위를 가라앉힌 뒤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



부부싸움  
어디까지 해봤니?

찬바람이 불면 나도 모르게 구미가 당기는 과일이 있다. 바로 겨울 제철과일이면서 비타민의 보고인 귤이다. 그래서 귤은 겨울철 감기예방에 좋다고 한다. 새콤하면서도 단맛이 감도는 귤은 한번 손이 가면 바닥을 봐야 직성이 풀릴 정도로 나는 귤을 너무나 사랑한다. 그래서 퇴근길에 귤 한 봉지를 사가지고 들어갔다. 애들도 귤을 보더니 아빠는 뒷전이고 귤 까먹느라 정신이 없었다.

문득 어린 시절 귤 따먹기 가위바위보 놀이가 떠올랐다. 아버지께서는 귤이 귀하기도 했지만 너무 빨리 먹는 것이 아까우셨는지 한 사람당 한 개의 귤을 건네주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만 한 개씩 떼어먹게 했었다. 참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이었다. 싫다는 아내를 꼬드겨 꼬맹이들과 함께 시작했다. 배고팠던 시절에는 재미있고 한 개라도 더 먹으려고 필사적으로 했던 놀이인데 요즘 애들한테는 영 통하지가 않았다. 그런데 귤을 씹을 때마다 오른쪽 어금니 쪽이 평소보다 시렸다. 전에도 양치질할 때면 가끔 피가 나오고

시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시린 정도는 아니었다. 다음 날 치과에 가보니 치주염이 심하다고 했다. 앞으로 관리를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다음번엔 이빨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며 치료를 해주셨다. 하지만 한번 시린 이빨은 뽑지 않은 이상 곱을 먹을 때마다 시린 것은 여전했다. 겨울이면 나에게 추억과 낭만을 안겨주던 곱을 더 이상 먹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니 나의 겨울은 너무나도 추워졌다.

그렇게 곱을 면발치로 바라보며 의기소침해있는데, 장모님이 제주도 서귀포에서 지인이 보내주었다며 곱한 상자를 가지고 오셨다. 이번 곱은 당도도 높고 맛있어 혼자 먹기에 아까울 정도라고 하셨다. 껍질도 얇고 탱글탱글한 것이 육안으로도 군침이 돌 정도였다. 두 눈 꼭 감고 딱 한 개만 맛보자 하고 먹었는데 문제의 어금니가 너무 시렸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슬픔을 이렇게 느낄 줄은 몰랐다.

장모님께서도 바쁘다며 급히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시고 돌아가셨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에게서 찬바람이 쐬~쐬~ 불었다. 두 눈에서는 슈퍼맨이나 쓸법한 레이저가 나왔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도 모르게 하루를 되돌아보며 반성해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보도 없었다. 이렇게 눈치만 보며 사느니 차라리 부딪쳐보자 싶어 아내에게 따졌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 했기에 이렇게 냉랭하게 대해? 차라리 내가 뭘 잘못했으면 뭘 잘못했다고 말을 해, 어?”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모한 도전이었다. 말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천하무적 아내에게 뭐하자고 대들었는지, 아내의 한마디에 무너지고 말았다. “장모님께서 멀리서 무거운 곱을 들고 왔고, 애들한테 용돈까지 주셨는데 좀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시라고 말이라도 하면 안 돼? 당신 입은 먹으라고만 있는 입이야?” 난 한마디도 못 했다.

속으로는 ‘장모님께서 바쁘다며 급히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라고 해?’라고 따지고 싶었고, 약간의 억울함도 있었지만 더 이상 말대꾸하면 내일 아침 밥마저 날아갈 것 같아 남자의 넓은 마음으로 참기로 했다.

그런데 아내는 아무런 말 없이 있는 나의 태도가 더욱 마음에 안 들었는지 더욱 매몰차게 대하며 3일 동안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뭐 괜찮다고 하지만 애들이 엄마아빠 눈치를 보는 것이 안타까웠다. 하는 수 없이 내가 먼저 대화를 시도했다. “똑같은 상황에 다른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다른 여자들은 당신처럼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 당신이 너무 심한 것 아니야?” 나의 무모한 대화는 비수가 되어 나에게 되돌아왔다. “옛말 하나도 틀린 것 없네. 남들 편만 든다고 ‘남편’이라고 한다더니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나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 “그럼 ‘여보’는 왜 여보야?” 하고 따졌더니 아내 왈 “제발~ 여자라고 보라고 ‘여보’다 어쩔래?” 하는 것이다. 한동안 내 머릿속에서 ‘이건 뭐지?’ 싶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아내의 애드리브가 너무나 웃겨 피식 웃었다. 그랬더니 아내도 자기가 뻔은 말이 말도 안 되고 웃겼는지 따라 웃었다. 이 틈을 이용해서 나는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고,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장모님을 들어오시게 해서 차 한 잔 따라드리겠다고 각서를 쓰고서야 마무리가 되었다.

다시 우리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역시 전쟁보다는 평화가 좋다. 예로부터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고 하지만 한번 베인 상처는 각서를 남겼고, 나에게도 평생 흉터가 되어 장모님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나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행복이고, 내 주변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또한 행복이라는 사실이다.

내 나이 마흔이 훌쩍 넘은 지금 인간이 백세까지 산다고 치면 이제 중반을 넘어섰다. 그리고 남은 삶 중에서 1/3은 잠을 잔다고 하니 나에게도 고작 17년~18년 정도 남은 것이다. 40년의 세월도 훌쩍 사라져버렸는데 그 절반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서글프기도 했지만 내 남은 삶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공기의 소중함을 잊고 지내듯이 삶 또한 소중하고 큰 선물임을 잊고 지낸다. 생일이나 기념일에 받는 선물에는 감사해 하면서 내 삶에는 너무 인색하지 않나 싶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하루하루를 매달려 살고, 남은 삶은 공짜로 주어진 것 마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니 아내와 싸운 3일이 너무나 아까웠다. 앞으로 남은 20년 만이라도 감사해 하며 주위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야겠다. 그리고 그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어야겠다.



## 작은 장례식



빨갛고 노랗게 단풍이 든 잎들이 눈처럼 내리던 어느 가을 일요일 아침, 초등학교 2학년인 막내딸이 우리 집 작은 방에서 나를 부르며 외친다.

“아빠! 아빠! 이리와 봐!”

“레오가 죽은 거 같아!”

그 소리에 얼른 작은 방으로 가 보았다. 이를 전부터 시름시름 앓으며 아무것도 먹지 않던 햄스터 ‘레오’가 꿈쩍 않고 누워 있었다. 쾅한 눈으로 보아 이미 죽은 듯하다. 막내딸의 소리에 달려온 아내도 죽었는지 확인해 보라고 재촉했지만 평소에 웅크리고 자던 것과는 달리 옆으로 뻗어 누운 모습이나 뻗뻗해 보이는 몸은 이미 살아있는 동물이 아닌 것이 분명해 보일 만큼 삶과 죽음의 차이는 확연했다. 엿저녁까지만 해도 몸이 불편해 보이긴 했지만 해바라기 씨를 가져다주면 껍질을 까서 입속 먹이주머니에 넣을 정도로 죽음이 가까워 보이진 않았다.

“밤새 저승사자라도 다녀간 걸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라는 물음이 일었지만 자연의 순리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나올 답이 없을 것 같다.

몇 해 전부터 아이들의 성화로 햄스터를 키우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키운 햄스터는 이웃에서 분양받은 정글리안 햄스터였고 ‘햄토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리고 햄토리가 수컷이란 이유로 암컷 햄스터 한 마리를 또 받아오게 되었는데 그녀에게 ‘레오’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새끼를 낳을 거라는 기대로 암·수 햄스터를 키웠지만 레오보다 나이가 어린 햄토리는 레오에게 구박당하기 일쑤였고 새끼를 낳을 거란 기대는 사라져 갔다.

어느 따뜻한 봄날 우리 가족은 관악산으로 소풍을 간 적이 있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우리 집으로 온 햄토리를 좋아해 함께 데리고 갔다. 아내와 아이들은 놀이를 하며 놀고 있었고 햄스터를 데리고 있던 내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2시간 가량을 찾았지만 나타나지 않았고 울먹이는 아이들을 위해 그날 밤 9시쯤 다시 산을 찾았다. 어둠속에서 불빛

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이유였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나의 관리소홀로 인해 벌어진 상황을 희석하기 위해 햄토리는 관악산의 신선이 되어 잘 살 거라는 엉뚱한 말로 아이들을 위로했다. 그러나 이미 머리가 굽어버린 아이들은 황당한 논리에 넘어가지 않았고 또 다른 햄스터를 사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날 나는 햄토리를 꼭 닮은 정글리안 햄스터와 노란 털을 가진 푸딩 햄스터 이렇게 2마리의 새끼 햄스터를 사줘야 했다.

이들에게 ‘앵두’랑 ‘호두’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얼마 전까지 우리 집엔 레오를 포함한 세 마리의 햄스터가 각각 집을 차지한 채 살고 있었다. 세 명의 아이들은 이들을 각각 개별 소유로 지정했고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레오의 주인이 막내딸이었던 것이다.

아침부터 눈물바다를 만들던 아이들은 레오를 위해 찬송가를 부르고 잘 가라는 작별의 편지를 썼다. 아파트 1층이 집이어서 평소에도 텃밭처럼 놀던 집 앞 화단에 화장지로 몸을 감싼 레오의 주검을 물어주었다. 레오가 먹다 남긴 먹이는 함께 물어 주었고 사용하던 집은 병을 옮길 수 있다는 이유로 버려졌다.

동유럽이 원산지인 햄스터는 1930년대부터 인간에 의해 길러졌다고 하며 수명은 2~3년 정도로 거의 3년을 살았던 우리 집의 ‘레오’는 천수를 누렸다고 할 수 있겠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인간의 발전과정을 인지혁명, 농업혁명, 인류의 통합, 과학혁명이라는 4단계로 구분하였고, 과학혁명은 우리가 위험할 정도로 힘을 갖게 된 시기로 사피엔스라는 종은 멸종하고 더 강해진 종, 가령 사이보그 같은 인간 다음의 종으로 발전하여 영생을 추구할 거라고 예측한다. 또한 <호모 데우스>에서는 인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알고리즘에 의해 모든 행동과 인식조차도 호르몬 등의 조절에 의해 움직이고 모든 것이 데이터화 하면서 아주 사소한 감정과 동작마저 통제하며 완벽한 신을 추구하는 사람과 신이 결합된 모습이 진화의 다음 단계라고 서술했다. 결국 영생을 누리는 ‘길가메스 프로젝트’가 최종 목표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그마저도 영원히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작은 장례식이 끝나고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일요일 오후를 보내며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인간에게 백세 시대가 왔다지만 죽음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3년이냐, 백 년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죽음은 햄스터든 인간이든 마지막에 찾아오는 현상임에는 틀림없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점에서 인간은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보다도 죽음 앞에서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여는 시점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의 소중함을 되새겨 본다.



# 교정공무원의 직업정체성이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I. 서론

교정공무원은 일반사회와 격리된 교정시설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보안과 수용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수용자를 교정교화해야 하는 상이한 성격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직업들과는 구별되는 매우 특수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교정공무원들은 강력범 수용자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위험, 주·야간 과도한 초과근무, 과밀수용과 폐쇄적인 근무환경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사회의 높아진 인권요구를 충족시키면서 한정된 인력으로 다수의 수용자들을 계호하고 각종 교육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등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교정시설과 교정공무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부정적 인식은 여전한 실정이다. 이처럼 어려운 직무환경 속에서 교정공무원들은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으며, 직무만족도는 전체 759개 직업 중에서 584위에 불과한 정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고용정보원, 2012).<sup>1)</sup> 교정행정이 가지는 사회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면, 교정공무원들이 겪는 직업상 고충과 스트레스는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교정공무원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갈등과 회의감을 느끼고 직무에 대한 불만족을 가진다면, 교정교화라는 직업적 소명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정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높은 직무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직업적 안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교정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초점을 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직업 정체성이란 자신의 직업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그 직업에 대해 심리적 일체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교정공무원들은 일반사회와는 다른 독특한 환경에서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고유의 직업 정체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수행자들을 교정교화하기 위해서는 소명의식, 사명감, 교정이념의 내면화, 소속감, 자부심 등을 포괄하는 교정공무원으로서의 강한 직업적 정체성이 요구된다. 만일 교정공무원이 부정적인 직업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일선 현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직업 안녕감이란 자기실현과 성장에 초점을 둔 심리적 안녕감(well-being)의 개념을 직업측면에 적용한 개념으로서, 직업생활에서 스스로 자신과 환경을 통제하며,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동기와 태도를 의미한다. Skorikov & Vondracek(2011)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 선택적이고 긍정적이며 강한 직업 정체성은 직업적 성공, 사회적 적응, 심리적 웰빙(well-being)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유홍준 등, 2014). 국내 선행연구들은 전문직업종사자의 전문적 속성을 측정하는 전문직업 정체성 척도를 적용한 연구들이 대부분인데, 전문직업 정체성은 직무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인 직업 정체성과 직업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지만, 관련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직업 정체성과 직업 안녕감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직업 정체성과 직업 안녕감이 가지는 의미가 클 것으로 인식하고, 이 두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공무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직업 정체성 및 직업 안녕감의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교정공무원의 직업 정체성과 직업 안녕감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셋째, 교정공무원의 직업 정체성이 직업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전국 52개 교정기관 중 지역 및 교정시설 특성 등을 고려하여 9개 설문조사대상 기관을 고르게 선정하고, 2016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현직 교정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유의표집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두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된 560부 중 불성실하게 작성된 29부를 제외하고 총 53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

#### ① 직업 정체성

직업 정체성 척도는 유홍준 등(2014)이 직업 정체성 척도개발 관련 연구를 통해 개발한 것으로, 직업 정체성 핵심개념 9개 문항과 직업 정체성 선행개념 중 자부심요인 4개 문항을 더하여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13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체감'과 '자부심'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일체감은 직업에 대한 감정적 동일시를 반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5개 문항으로, 자부심은 직업에 심리적 긍지를 반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 정체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일체감은 .792, 자부심은 .908로 나타났다. 전체 신뢰도는 .901로 나타났다.

#### ② 직업 안녕감

직업 안녕감 척도는 Schultz(2008)가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의 6가지 요인을 직업 안녕감의 개념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으로, 오현주(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38문항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8문항 중 타당도가 0.4 이하인 3문항을 제외한 35문항을 사용하였으며, 하위요인의 문항 수는 직무 자율성 8문항, 환경통제력 6문항, 긍정적 조직관계 4문항, 자기수용 8문항, 직무목표 5문항, 직무성장 8문항으로 총 39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 안녕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직무 자율성은 .882, 환경통제력은 .845, 긍정적 조직관계는 .790, 자기수용은 .861, 직무목표는 .820, 직무성장은 .765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954로 나타났다.

1) 2017년 직업만족도 조사는 595개 직업 중 338위로 상승 (한국고용정보원)

### 3. 직업 정체성과 직업 안녕감의 관계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서 오랜 기간 종사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직업 정체감은 직업 생활에서의 성취와 만족감 등을 의미하는 직업 안녕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Skorikov & Vondracek(2011)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 선택적이고 긍정적이며 강한 직업 정체성은 직업적 성공, 사회적 적응, 심리적 웰빙(well-being) 등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직업 정체성과 직업 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없지만, 직업 정체성과 유사한 구성요인을 내포한 전문직업 정체성과 조직몰입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직업 정체성과 직업 안녕감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전문직업 정체성은 '전문직업성'으로서 '정체성'에 바탕을 둔 개념은 아니지만, 개인이 어느 정도 전문직업적 속성을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직업 정체성과 유사한 면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전문직업 정체성은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전태준, 2006; 이사겸, 2009; 류채형, 2010; 최연선, 2011). 조직몰입은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동일시와 일체감의 정도를 의미하는데(Anderson & Williams, 1991), 이는 사회 정체성 범주에 속하는 조직 정체성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조직몰입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미숙, 2010; 유은영, 2016). 위와 같은 전문직업성 및 조직몰입에 관한 개념과 이들이 심리적 안녕감 등에 미치는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직업 정체성은 직업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업 정체성과 직업 안녕감을 살펴본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지만, 박병용(2013)의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업의식이 직무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결과를 맥락을 통해서 교정공무원의 직업 정체성이 직업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해 볼 수 있다.

## III.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직업 정체성 및 직업 안녕감 수준

조사대상자의 직업 정체성과 직업 안녕감 및 각 하위요인의 기술통계량은 표 1과 같다.

직업 정체성의 전체 평균은 3.449(SD=.572)이고 자부심의 평균은 3.360(SD=.653), 일체감의 평균은 3.539(SD=.651)으로 각각 나타나, 5점 Likert척도의 중앙치인 3을 기준으로 할 때 다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직업 안녕감의 전체 평균은 3.422(SD=.444)이고, 직무자율성은 3.468(SD=.555), 환경 통제력은 3.233(SD=.533), 긍정적 조직관계는 3.573(SD=.543), 자기수용은 3.467(SD=.483), 직무목표는 3.338(SD=.551), 직무성장은 3.454(SD=.549)으로 각각 나타나, 5점 Likert 척도의 중앙치인 3을 기준으로 할 때 다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N=531)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M)	표준편차 (SD)	왜도	첨도
자부심	1.50	5.00	3.360	.653	.042	-.006
일체감	1.60	5.00	3.539	.651	-.120	-.187
<b>직업 정체성</b>	<b>1.55</b>	<b>5.00</b>	<b>3.449</b>	<b>.572</b>	<b>.096</b>	<b>.184</b>
직무 자율성	2.00	5.00	3.468	.555	-.042	-.116
환경 통제력	1.83	4.83	3.233	.533	.117	-.076
긍정적 조직관계	2.00	5.00	3.573	.543	.002	-.078
자기수용	2.00	5.00	3.467	.483	.161	.055
직무목표	2.00	5.00	3.338	.551	.212	.093
직무성장	2.00	5.00	3.454	.549	.131	.071
<b>직업 안녕감</b>	<b>2.00</b>	<b>4.95</b>	<b>3.422</b>	<b>.444</b>	<b>.189</b>	<b>.071</b>

### 2. 직업 정체성과 직업 안녕감의 상관관계

조사대상자의 직업 정체성과 직업 안녕감 및 각각의 세부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2와 같이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자부심	일체감	직업 정체감	직무 자율성	환경 통제력	긍정적 조직관계	자기수용	직무목표	직무성장
일체감	.541**								
직업정체감	.878**	.878**							
직무자율성	.793**	.497**	.735**						
환경통제력	.504**	.353**	.488**	.633**					
긍정적조직관계	.518**	.431**	.541**	.587**	.620**				
자기수용	.615**	.420**	.590**	.739**	.621**	.695**			
직무목표	.568**	.383**	.542**	.712**	.631**	.600**	.681**		
직무성장	.383**	.272**	.373**	.588**	.568**	.508**	.551**	.628**	
<b>직업 안녕감</b>	<b>.680**</b>	<b>.474**</b>	<b>.657**</b>	<b>.858**</b>	<b>.819**</b>	<b>.805**</b>	<b>.856**</b>	<b>.857**</b>	<b>.776**</b>

주) \*\* p<.01

직업 정체성과 직업 안녕감은 .657(p<.01)의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직업 정체성의 하위요인 중 일체감은 직업 안녕감과 .474(p<.01)의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자부심은 직업 안녕감과 .680(p<.01)의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직업 정체성의 각 하위요인과 직업 안녕감 각 하위요인 상호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직업 정체성과 직업 안녕감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관관계를 토대로 직업 정체성이 직업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 3. 직업 정체성이 직업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직업 정체성이 직업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결혼 유무, 직급, 근무부서 등을 통제하고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과 결혼유무 및 근무부서는 더미 처리하여 분석했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설정된 독립변수들 중에서 직업 정체성은 .654(P<.001) 수준에서 직업 안녕감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업 정체성이 높을수록 직업 안녕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모형	B	SE	β	t	공차 한계	Durbin-waston
성별	-.075	.040	-.062	-1.871	.963	R <sup>2</sup> =.437 adjR <sup>2</sup> =.431 F=67.900***
연령	.024	.025	.046	.942	.443	
결혼 유무	.019	.043	.018	.449	.649	
직급	-.007	.024	-.014	-.288	.438	
근무부서	-.003	.030	-.003	-.088	.980	
<b>직업 정체성</b>	<b>.507***</b>	<b>.026</b>	<b>.654</b>	<b>19.562</b>	<b>.962</b>	

주) \* P<.05, \*\* P<.01, \*\*\* P<.001, 성별더미(남성:1, 여성:0), 결혼 여부더미(기혼:1, 미혼:0), 근무부서더미(보안관련부서:1, 사무관련부서:0)

표 2. 직업 정체성과 직업 안녕감의 상관관계 (N=531)

표 3. 직업 정체성이 직업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모형 분석결과

표 4  
자부심과 일체감이  
직무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N=531)

#### 4. 직업 정체성의 하위요인 일체감과 자부심이 직업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직업 정체성의 두 가지 하위요인이 직업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자부심과 일체감을 독립변수로, 직업 안녕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실시한 다중회기분석결과 표 4와 같다.

모형	B	SE	$\beta$	t	공차 한계	Durbin- waston
성별	-.050	.039	-.041	-1.293	.955	
연령	.030	.024	.058	1.238	.442	
결혼유무	.025	.041	.024	.614	.649	R <sup>2</sup> =.487
직급	.009	.023	.019	.405	.434	1.829 adjR <sup>2</sup> =.480
근무부서	.018	.029	.020	.619	.970	F=70.910***
<b>자부심</b>	<b>.412***</b>	<b>.026</b>	<b>.606</b>	<b>16.130</b>	<b>.694</b>	
<b>일체감</b>	<b>.086**</b>	<b>.027</b>	<b>.127</b>	<b>3.243</b>	<b>.644</b>	

주) \* P<.05, \*\* P<.01, \*\*\* P<.001, 성별더미(남성:1, 여성:0), 결혼여부더미(기혼:1, 미혼:0), 근무부서더미(보안관련부서:1, 사무관련부서:0)

자부심은 .606(P<.001) 수준에서 직업 안녕감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체감은 .127(P<.01) 수준에서 직업 안녕감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부심과 일체감이 높을수록 직업 안녕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자부심이 일체감보다 직업 안녕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I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공무원의 직업 정체성이 직업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를 위해 전국 9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분석을 통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직업 정체성 및 직업 안녕감의 차이, 직업 정체성과 직업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 직업 정체성이 직업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공무원의 직업 정체성은 대체적으로 미혼보다 기혼이, 연령과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근무경력이 짧고 젊은 직원일수록 교정행정에 대한 기대감이나 열정은 높지만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근본적인 회의감, 중압감이 높기 때문에 직업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직업 안녕감은 대체로, 미혼보다는 기혼이, 연령과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보안 관련 부서보다는 사무 관련 부서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병용(2013)의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 근무경력, 직급, 근무형태에 따라서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법무부에서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직무만족도와 업무만족도 조사 결과(법무부, 2015)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직업 안녕감은 근속에 따른 직무적응과 자율성의 확대, 자신의 능력과 소질의 발휘 경

험 등을 통해 직업생활에서 자기실현적 만족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직업 안녕감은 보수, 직급, 근무형태와 같은 직무 만족적 보상가치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직업 정체성과 직업 안녕감, 직업 정체성 및 직업 안녕감의 각각의 하위요인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직업 정체성이 직업적 성공과 심리적 안녕감을 매우 잘 예측하게 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직업 정체성의 일체감 요인이 직업 안녕감과 상관을 가지는 것은, 긍정심리학에서 몰입 경험이 행복감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하며, 직업에 대한 일체감이 직업생활에서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직업 정체성 개발 관련 연구(유홍준, 2014)에서는 자부심요인 문항을 직업 정체성 척도에서 제외하였으나, 자부심 요인이 직업 안녕감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직업에 대한 주관적 가치 인식이 직업 정체성의 중요한 핵심요인임을 시사한다.

넷째, 직업 정체성이 직업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직업 정체성은 직업 안녕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korikov & Vondracek(2011)의 연구에서 자기 선택적이고 긍정적이며 강한 직업 정체성은 직업적 성공, 사회적 적응, 심리적 웰빙(well-being)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전태준(2006), 이사경(2009), 류채형(2010), 최연선(2011)의 연구에서 전문직업 정체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직업 정체성의 일체감이 직업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미숙(2010), 유은영(2016)의 연구에서 조직몰입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 직업 정체성의 자부심이 일체감보다 직업 안녕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정공무원들에게 직업적 자부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교정공무원의 직업 정체성은 직업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직업에 대한 일체감과 자부심을 구성요인으로 하는 직업 정체성과 자아실현적 행복감의 의미를 내포한 직업 안녕감과 상관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과 교정공무원의 직업적 안녕감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직업정체감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기관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주·야간 교대근무 등의 사정으로 설문조사에 활용표집이 적용되지 못한 관계로, 응답자 오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조사대상자가 나이, 근무경력, 성별, 직급 등에 따라 고르게 표집하지 못한 미비점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객관적으로 반영되도록 표본의 수를 적정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정공무원의 직업 정체성이 직업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으므로, 교정공무원의 직업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특히 직업 정체성이 가장 낮은 30대, 8급, 근무경력이 6~10년에 해당되는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직업 정체성 척도는 문헌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것으로, 추후 다양한 직업 종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 등의 연구를 통해서, 직업 정체성의 구성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타당성 높은 척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교정연구 제26권 제3호(2016.3)에 게재된 논문을 요약하여 정리함 ]



# 헌법

## 지상강좌 I

헌법은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다.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다. 매호 '지상강좌' 코너를 통해 헌법 관련 문제를 풀어보자.

### 1.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나,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②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하면서'라 함은 직무행위를 구성하는 행위는 물론 객관적으로 직무행위와 외형상 관련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한다.
- ③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 또는 기각결정을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다.
- ④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⑤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③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9조).

①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대판 1999. 11. 26, 98다47245).

②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1. 1. 5, 98다39060).

④ 국가배상법 제8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 (생략) ……'고 하고 소멸시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아니함으로써 국가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인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과 책임의 본질, 소멸시효제도의 존재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의 입법자의 결단의 산물인 것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2. 20, 96헌바24).

⑤ 국회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헌재 2004. 2. 26, 2001헌마718).

정답 ③

### 2.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적 보장의 하나로서, 기본권 보장의 경우와는 달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입법자에게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의 형성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② 지방자치법이 주민투표권을 규정하여 주민이 지방자치사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는 어디까지나 입법자의 결단에 의하여 채택된 것일 뿐 헌법이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이란 한마디로 국민주권의 기본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의 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고, 이러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그 감사대상을 특정해야 한다. 따라서 전반기 또는 후반기 감사와 같은 포괄적·사전적 일반 감사나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
- 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하여까지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가 지 하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대하여 자율적인 정책결정을 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크게 제약받아 중앙정부의 하부행정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다분히 있게 되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⑤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 사건 감사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또한 감사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할 수 있는 정치를 마련해두고 있는 점, 국가재정지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우리 지방재정의 현실,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한계 등으로 인한 외부감사의 필요성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관련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로 지나친 제한을 함으로써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헌재 2008. 5. 29, 2005헌라3).

①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적 보장의 하나로서,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재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헌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전,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기본권과 구별되기는 하지만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면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무를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써 이를 폐지할 수 없고, 비록 내용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본권의 보장은 … (중략) …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임에 반하여, 제도적 보장은 기본권 보장의 경우와는 달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입법자에게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의 형성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헌재 2009. 7. 30, 2007헌바75).

② 지방자치법이 비록 주민에게 주민투표권(제13조의2)과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제13조의3) 및 감사청구권(제13조의4)를 부여함으로써 주민이 지방자치사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는 어디까지나 입법자의 결단에 의하여 채택된 것일 뿐, 헌법이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③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은 한마디로 국민주권의 기본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의 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헌재 1998. 4. 30, 96헌바62).

④ 중앙행정기관이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단서 규정상의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그 감사대상을 특정해야 한다. 따라서 전반기 또는 후반기 감사와 같은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9. 5. 28, 2006헌라6).

정답 ⑤



## 지상강좌 II

### 교정학

형사소송법이란 범죄를 수사하여 형벌을 부과하고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한 법률체계를 일컫는다. 격월 '지상강좌' 코너를 통해 형사소송법 관련 문제를 풀어보자.

#### 1. 형집행법 제1조의 목적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몇 개인가?

- |             |                     |
|-------------|---------------------|
| ㉠ 수용자의 교정교화 | ㉡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
| ㉢ 직업훈련 실시   | ㉣ 미결수용자의 수용         |
| ㉤ 수용자의 처우   | ㉥ 교정시설의 운영          |
| ㉦ 수형자의 격리   | ㉧ 건전한 국민상상과 근로정신 함양 |
| ㉨ 수용자의 권리   |                     |

- ① 7개                      ② 5개                      ③ 4개                      ④ 3개

㉠㉡㉢㉤이 맞는 내용이다. ㉠ 수형자의 교정교화이다. ㉢㉣㉤ 규정에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③

#### 2. 스위스 국적인 여성 하이디는 죄를 범해 교도소로 들어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유산을 하였을 경우 소장은 정기적인 검진을 하지 않아도 된다.
- ② 고의적인 음식물 섭취 거부로 인해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의 건강이 의심되는 경우 음식물을 강제 섭취시킬 수 있다.
- ③ 하이디의 친구인 ○○○가 면회 왔을 시 보안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자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면 안 된다.
- ④ 하이디의 14세 딸이 면회를 왔을 시 외국인이므로 차단되지 않은 장소에서 면회를 할 수 있다.

①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유산을 하였을 경우 소장은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로 접견을 제한하는 경우는 보안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청취·녹음 또는 녹화될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어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④ 하이디의 14세 딸이 면회를 왔을 시 외국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자녀와 여성수용자의 접견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차단되지 않은 장소에서 면회를 할 수 있다.

정답 ②

#### 3.수용자에 대한 징벌 및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장은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경우 수용자의 면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수용자가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소장은 지체 없이 청원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2회 이상 정보공개청구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수용자는 향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징벌위원회는 징벌대상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유예를 의결할 수 있다.

① 면담제외사유(형집행법 제116조 제2항)

- 1.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                      2. 면담목적의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때
- 3.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때
- 4.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 수용자가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동법 제117조 제3항).

③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청구인 비용부담 원칙)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수용자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즉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수용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이다.

④ 징벌위원회는 징벌대상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유예를 의결할 수 있다.

정답 ①

#### 4.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류심사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②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분류심사는 일정한 형기가 도달한 때 하는 정기재심사와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하는 부정기재심사로 구분한다.
- ③ 정기재심사는 형기의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6분의 5에 도달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다만,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취소 또는 추가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는 부정기재심사 사유에 해당된다.

④ 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는 부정기재심사 사유에 해당된다.

부정기재심사 사유(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7조)

- 1.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
- 2. 수형자가 교정사교(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수용자의 자살·도주·폭행·소란,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음)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 3.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 4. 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현재 수용의 근거가 된 사건 외의 형사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음)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 5. 수형자가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때
- 6. 삭제
- 7. 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또는 처우의 조정이 필요한 때

정답 ④

# 교정본부 NEWS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JANUARY 2018 Vol. 500

## 교정본부장, 교정기관 정책현장 방문 및 교정위원 간담회 참석

지난 12월 7~8일 교정본부장은 부산구치소 및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직원 및 교정위원과의 간담회를 주재했다. 교정본부장은 법무부장관 표창장을 전수하며 일선 교정기관의 어려움을 들었으며, 간담회에서 교정위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 법무부, 한국 상담심리학회와 업무 협약식 개최

지난 12월 6일 교정본부장, 한국 상담심리학회 학회장 대행 신희천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와 한국 상담심리학회의 업무 협약식이 개최됐다. 이번 협약은 우수한 상담 인력 수급, 전문 교육 인력 지원 등 다양한 업무 교류를 위해 추진됐으며 전국 교정기관 내 외부 전문가 상담 지원, 교정공무원 상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등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



## 2017년 심리치료 중앙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지난 12월 1일 교정본부 대회의실에서 심리치료 팀 업무 역량 강화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논의하는 2017 심리치료 중앙자문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는 교정본부장, 보안정책단장, 심리치료과장, 경기대 이백철 교수 등 10인이 참석했다.

## 2017년 교정직 8급(교사) 승진시험

지난 12월 2일 각 청에서 2017년 교정직 8급(교사) 승진시험이 치러졌다. 이번 시험 선발인원은 서울청 80명, 대구청 70명, 대전청 45명, 광주청 26명으로 총 221명이었으며, 지원자는 서울청 279명, 대구청 235명, 대전청 107명, 광주청 91명으로 총 712명을 기록했다. 선발인원은 2018년 1월 8일 임용된다.



## 2017년 원격의료시스템 추가 구축 개통행사 개최

지난 12월 12일 홍성교도소에서 홍성교도소장, 홍성의료원장 등 10인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원격의료시스템 추가 구축 개통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원격의료시스템을 활용한 수용자 진료와 처방을 시연하고, 추가 구축기관인 제주교도소와의 원격의료 연결을 시연했다. 현재 원격의료 시스템은 34개 교정기관과 33개 협력병원이 서로 연결해 구축한 상태다.

## 2017년 하반기 하트세이버 인증서 및 장관 표창 전수식 개최

지난 12월 8일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신속한 응급조치로 인명을 구한 직원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장관 표창 전수식을 개최했다. 최우수 하트세이버 1인을 포함한 총 8인의 수상자에게는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함께 교정본부장 격려금이 지급됐다.



## 교정본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합동 워크숍 참석

교정본부는 지난 11월 30일~ 12월 1일까지 제천 레이크호텔에서 진행된 교정본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합동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출소예정자 취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교정 · 공단 간 성과분석 및 업무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교정본부에서 직업훈련과장 등 3명, 소속기관에서 취 · 창업 담당자 76명, 공단에서 공단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교화방송자문단 제19차 정기회의 개최

지난 12월 15일 서울동부구치소 회의실에서 교화방송자문단 제19차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사회복귀과장, 교화방송 자문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는 교화방송 편성심의회와 방향 그리고 수용자의 인성 변화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방송 콘텐츠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 서울지방교정청

###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서지선

#### 분류업무 담당자 간담회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11월 24일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소속기관 분류업무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가석방 심사 방안', '노역수형자 분류처우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 서울구치소 / 교사 김형석

#### 2017년 사격훈련 시행

서울구치소는 11월 2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7년 사격훈련을 했다. 효율적인 교정시설의 자체 방호능력 향상을 위해 개인화기의 조작 숙달 및 사격술 연마 등의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 인양교도소 / 교도 김희락

#### 수리초등학교 교도관 진로체험 방문 특강

인양교도소는 11월 30일 수리초등학교에서 열린 진로박람회에 교위 김현탁 등 3명이 방문해 교도관 진로체험 특강을 했다. 특강은 5, 6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이 방문 직원과 함께 직접 교도관이 사용하는 장비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수원구치소 / 교사 유동경

####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수원구치소는 12월 14일 구직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 23명을 대상으로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는 가석방예정자 등 23명과 ㈜우림사업 등 11개 업체가 참여해 출소예정자가 다양한 업체의 면접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인양교도소

### 서울동부구치소 / 교사 제광석

#### 벨기에-한국 의원친선협회 참관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11월 21일 벨기에-한국 의원친선협회 회장단 홀 드세인 등 8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들은 한국의 최신 교정시설 내 첨단 시스템을 견학하며 교정기관의 역할과 운영,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 인천구치소 / 교도 강호철

#### 수용자 교화공연 개최

인천구치소는 11월 25일 수용자 120명을 대상으로 교화공연(뷰티풀 마인드 앙상블 콘서트)행사를 가졌다. 뷰티풀 마인드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수용자들을 찾아가 공연을 통해 사회와의 단절감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 서울남부구치소 / 교사 오정룡

#### 남부보라미 어린이집 원아 선물 전달

서울남부구치소는 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법무부 남부보라미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김종욱 소장 등 방문 직원들은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전달하고, 담당 선생님에게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서울남부구치소는 앞으로도 직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권오일

#### 청렴 유적지 탐방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청렴 지킴이 직원은 충현박물관을 방문했다. 이번 탐방은 참석한 모두에게 오리 선생의 애민정신과 청백리 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김승만 소장은 "강직하고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한 이원익 선생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공직자 정신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수원교도소

### 의정부교도소 / 교도 김주용

####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시행

의정부교도소는 11월 29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소속 직원 100여 명과 영화를 관람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인권 보호에 매진한 소속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현 소장은 "직원이 행복한 직장문화가 우선할 때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인권 보호 실천이 가능하다"라며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약속했다.

### 여주교도소 / 교사 송재훈

#### 직원 서예 전시회 개최

여주교도소는 12월 11일 민원봉사실 내 보라미갤러리에서 '붓길 따라라'는 주제로 손현웅 교위의 서예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교정시설을 민원인이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장소로 인식시키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 전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교정행정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

### 서울남부교도소 / 교위 박진

#### 한마음 족구 대회 개최

서울남부교도소는 12월 6일 직원들과 한마음 족구 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월부터 2개월에 걸쳐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진 이번 경기는 이날 최종 네 팀의 준결승전, 결승전을 비롯해 간부팀의 번외경기로 마무리됐다. 추위도 잊을 만큼 흥미진진했던 경기의 최종 우승팀인 보안B팀과 준우승, 3위팀에게는 소장의 축하와 상금이 전해졌다.

### 춘천교도소 / 교사 김민구

#### 성희롱 등 폭력 예방 교육 시행

춘천교도소는 11월 21일 성희롱 등 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 춘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소속 전문강사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서의 폭력을 설명하고 각각의 개념, 사례, 민감성 등 전문적인 내용을 강



여주교도소

연했다. 민낙기 소장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한 요즘,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장생활뿐 아니라 평소에도 공직자로서 품위를 위반하는 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 원주교도소 / 교사 변진재

#### 삼육고등학교 학생 대상 보라미 준법교실 및 참관 실시

원주교도소는 12월 8일 삼육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보라미 준법교실과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보라미 준법교실에서는 청소년의 눈높이로 법질서 준수와 중요성을 교육했고 교정 홍보영상 시청, 교정직공무원 직업 소개 및 기관 참관을 실시했다.

### 강릉교도소 / 교사 양인호

####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및 학생 참관 실시

강릉교도소는 12월 21~22일 166명의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와 학생의 참관을 진행

## 대구지방교정청

###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김상수

#### 폭력 예방 통합교육 시행

대구지방교정청은 11월 30일 직장 내 폭력 예방과 성 평등 인식을 위해 로페가정상담소 정용남 소장을 초빙해 통합교육을 했다. 대구지방교정청은 직장 내 폭력 예방과 성 평등 인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대구교도소 / 교사 정주영

#### 수형자 캘리그래피 작품 전시회

대구교도소는 11월 27일 수형자 캘리그래피 창작품 30여 점을 외부방문객 및 수형자가 관람할 수 있도록 점전점수실과 소 내에 전시했다. 이번 작품전시회는 체험형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결과물로서 박호서 소장은 "앞으로도 수형자 스스로 긍정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부산구치소 / 교사 박창훈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책현장방문

11월 2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부산구치소에 방문해 과밀수용 문제와 노후화된 교정시설 운영 상

했다. 이번 참관은 교수 및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 실시됐다. 모준섭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엄정한 법 집행 절차를 경험할 기회였으며, 특히 교정시설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 실질적인 현장학습이 되었다"고 했다.

### 영월교도소 / 교사 손동규

#### 까막딱따구리 사랑의 연탄배달

12월 13일 영월교도소 직원 봉사단(까막딱따구리)은 영월군 일대 기초생활 가정과 다문화 가정 등 총 5가구를 방문해 총 2,500장의 사랑의 연탄을 배달했다. 이 행사는 이웃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라며 진행됐다. 영월교도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고 봉사를 선행하는 교정기관이 될 것을 약속했다.

###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사 정원기

#### 사랑의 동전 모금함 개봉식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12월 8일 기관 내 비치되어 있던 사랑의 동전 모금함 개봉식을 가졌다. 교정위

황,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등 주요정책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부산구치소는 대표적인 노후 교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관리가 잘 되어있다"라며, "인건과 원천이 조화되는 수용관리를 통해 재범방지 분야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정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북북부제교도소 / 교도 김남규

#### 진보초등학교 장학금 전달

경북북부제교도소는 12월 15일 지역인재육성 기여 취지로 관내 소재의 진보초등학교 재학생 2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선발기준은 성적 우수학생, 선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 다양하다. 경북북부제교도소는 2008년부터 직원 성금을 모아 지금까지 지역학교에 약 1억 8,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 창원교도소 / 교사 문정수

#### 청렴가족사진 공모전 실시

창원교도소는 청렴한 창원교도소 구현을 위해 청렴가족사진 공모전을 실시했다. 공모전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회의 끝에 온 가족이 함

원 및 직원 입회 하에 개봉된 금액은 25만 6,880원으로 전액 불우수용자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이현철 지소장은 "앞으로도 교정기관과 지역 이웃이 함께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소망교도소 / 배현승

#### 2017년 12월 세진음악회 소망합창단 출연

12월 5일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제38회 세진음악회에 소망교도소 소망합창단이 참가했다. 직원과 수용자 연합으로 이루어진 소망합창단은 3곡을 합창하며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들은 "음악을 통한 작은 행복이 소망교도소 곳곳에 가득하기를 기대해본다"며 참관 소감을 밝혔다.

게하는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에 적합한 사진 3점을 선정해 소장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

### 부산교도소 / 교사 강민승

#### 김학성 교정본부장 정책현장 방문

12월 8일 김학성 교정본부장은 신뢰받는 교정행정의 정책현장 점검을 위해 부산교도소에 방문했다.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교정본부장은 직접 정책현장을 둘러보고 집중인성교육 등 각종 교정프로그램 운영현황과 실태를 점검했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 포항교도소 / 교사 권대희

#### 학천초등학교 장학금 전달

포항교도소는 12월 1일 학천초등학교 재학생 5명에게 각 3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2016년 12월 학천초등학교와 체결한 장학사업 협약의 일환으로 포항교도소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덕에 그 뜻을 더했다.

## 대구지방교정청

### 진주교도소 / 교위 성태현

#### 제26기 마음치유 프로그램 수료식

진주교도소는 12월 7일 정신질환 수형자 44명을 대상으로 3차(제26기) 마음치유프로그램 수료식을 했다. 이 프로그램은 8월 28일부터 13주간 약물 증상교육, 사회기술훈련 등 10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는 정신질환 재발 방지, 자해, 폭행 등 교정사고 예방은 물론 수형 생활 안정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2017년 한해 총 수료자는 137명이다.

### 대구구치소 / 교도 광명재

####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대구구치소는 12월 5일 수용자의 재범방지과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 2017년 제6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주)희성산업, (주)일광, (주)대창창호 등 지역 유망기업 3개 업체와 (재)대구 직업전문학교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참여해 출소예정자 중 상담희망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취업면접을 진행했다.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조진호

#### 2017년도 제4회 기능사 실기시험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직업훈련생을 대상으로 11월 23일부터 7일간 제4회 기능사 실기시험을 치렀다. 이번 시험에서는 전기 38명, 건축도장 31명, 자동차 정비 22명, 공조냉동 26명, 운수운물 23명, 정보기기운용 33명, 제과제빵 25명 등 총 198명이 응시했고 이 중 196명의 직업훈련생이 합격했다.

### 안동교도소 / 교도 양승명

####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안동교도소는 11월 28일 수형자 취업 알선을 위해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출소가 임박한 11명의 수용자와 (주)광진기업 등 5개 구인업체 및 고용노동부 안동고용복지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

부가 참여했으며 취업 관련 구직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해 출소에정자의 취업을 알선했다.

###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도 심상현

#### 법포럼 경북로스를 참관 실시

11월 29일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법포럼 경북로스를 전정주 교수 등 14명이 사실을 참관했다. 이번 참관은 교정시설 공개로 교정행정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시설 내 인권 처우를 직접 접해 대국민 교정행정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다.

###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김기년

#### 소년수형자 뮤지컬 '안녕! 내일' 공연

김천소년교도소는 11월 30일 창작 뮤지컬 '안녕! 내일'을 공연했다. 이날 공연에는 교정본부장을 비롯해 제로캠프 위원장인 최불암, 제로캠프운영위원, 교정위원, 지역 유관기관장 및 지역주민, 수형자 가족 등이 함께 참석했다.

###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이유성

#### 수용자 교화공연 및 노래자랑 시행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12월 6일 대구108문화원의 주관으로 성주 관현악단, 경북 가수 협회 가수를 초대해 수용자 교화공연 및 수용자 노래자랑을 시행했다. 이번 행사는 수용 생활로 지친 수용자가 명랑한 수용 생활의 장을 가꾸는 계기가 되었다.

### 울산구치소 / 교사 차석호

#### 수용자 멘토링데이 개최

울산구치소는 12월 11일 교정위원 10명을 초청해 교정위원과 수용자의 멘토링데이를 개최했다. 멘토링 데이는 교정위원과 만남을 통해 수용자의 인간성 회복은 물론, 심성 순화, 안정적인 수용 생활, 정서적 안정을 목표로 한다.

### 경주교도소 / 교위 박상진

#### 포승술 및 도주방지 계호 교육 시행

경주교도소는 12월 14일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포승술 및 도주방지 계호교육을 실시했다. 경주교도소 교위 조경동 등 3명은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를 찾아 직원들에게 도주 사고 방지를 위한 계호 및 호송업무 전반에 대해 교육하고 포승술 시범과 실습을 통해 계호 업무 전반에 대해 교육했다.

### 통영구치소 / 교위 조정훈

#### 합동 소방훈련 시행

통영구치소는 11월 16일 통영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시행했다. 이날 훈련은 수용자 취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취사장 전체로 불길이 퍼지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초동 조치를 위한 개인별 임무 숙지, 각종 소방장비 사용요령 숙달, 환자 후송 등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진행됐다.

### 밀양구치소 / 교사 김진환

#### 청렴 유적지 추원재를 찾아서

밀양구치소는 바람직한 공직자상 정립과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12월 8일 점필재 김종직 선생의 생가와 예림서원을 탐방했다. 밀양구치소는 이번 탐방 외에도 청렴 실천 결의대회, 부조리 자진신고 기간 상시 운영 등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상주교도소 / 교위 임대욱

#### 달팽이 봉사단 장학금 전달

상주교도소 달팽이 봉사단은 12월 8일 상주시 사벌초등학교, 상주중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성적 우수 학생, 선행 또는 효행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사벌초등학교 3명, 상주중학교 3명 등 총 6명에게 12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 NEWS

## 대전지방교정청

###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류경태

#### 한우물봉사단 사랑의 집 방문

대전지방교정청 한우물봉사단은 12월 16일 사랑의 집을 방문해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분기별로 꾸준히 사랑의 집을 방문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 대전교도소 / 교위 하봉문

#### 제40회 한·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 실시

대전교도소는 11월 16일 제40회 한·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 2차전 경기참여와 참관을 했다. 대전교도소 연무관에서 일본 선수단 24명과 한국 선수단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도·검도 순으로 경기를 진행했으며 양국의 교정발전과 교정공무원의 우정과 친선을 더욱 돈독히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청주교도소 / 교사 최진영

#### 찾아가는 심신 케어 프로그램 시행

청주교도소는 12월 1일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심신 케어 프로그램·마음왕진 서비스를 했다. 이 프로그램은 직원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심리상담(마음나라) 프로그램 내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개인 케어상담, 피지컬 케어 및 스트레스 검진, 개인 심리상담 등을 진행했다.

### 천안교도소 / 교사 이희성

####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천안교도소는 12월 14일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직원과 교정위원 등 50여 명이 참여, 결손가정 및 불우 수용자 가족 38가구에 200여 포기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유태오 소장은 "직원들과 교정위원이 정성스럽게 만든 김

치를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 가족들에게 전달한 이번 행사가 추운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되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청주여자교도소 / 교도 조아라

#### 가정 폭력 예방 교육 실시

청주여자교도소는 11월 23일 가정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중앙성교육아카데미 원장 김선영 강사는 80명의 직원과 두 시간 동안 가정 폭력의 개념 및 유형, 현 실태와 예방방안 그리고 대책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점숙 소장은 가정 폭력의 피해를 입은 수형자들에게도 따뜻하게 관심을 갖고 교정교화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 공주교도소 / 교위 김종욱

#### 지역 관계기관 기관장 참관 시행

공주교도소는 11월 28일 지역 관계기관 기관장들을 초청해 시설참관을 실시했다. 공주 지역에 위치한 16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여했으며 업무 현황 설명, 기념촬영, 구내시설 참관 등을 했다.

### 충주구치소 / 교위 조만택

#### 개칭 13주년 기념식 개최

충주구치소는 12월 4일 개칭 13주년 기념행사를 했다. 다과회 자리에서 직원들이 추억담을 나누며 격려한 후 직원 자녀가 행복나무에 점등을 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윤창식 소장은 "13년간 함께하며 우리들의 숨결이 땀 이 건물도 자기완결성의 한 부분이 됐기에 이런 행사를 준비했다"며 기념식의 취지를 밝혔다.

### 홍성교도소 / 교도 김영선

#### 홍성의료원 원격의료시스템 구축

홍성교도소는 홍성의료원과 원격의료시스템을 구

축하고 12월 12일 업무 협약식 및 개통식을 가졌다. 원격진료 시스템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협력병원 전문의로부터 화상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민육기 소장은 "지속적인 의료처우 환경의 선진화를 통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로 수용자의 건강증진과 의료처우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천안개방교도소 / 교도 하대웅

#### 경기대학교 교정학과 학생 참관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12월 1일 경기대학교 교정학과 학생과 교수 3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참관은 교정행정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개방교도소의 설립 취지와 활동에 관해 설명한 뒤, 소 내 견학으로 마무리 됐다. 참관은 학생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유제영

#### 보라미 준법교실 실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12월 6~7일 명지중학교와 서산중학교를 방문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학생들의 준법 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법질서와 교도관이 하는 일 등을 강연했다. 강기천 소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한 교정시설 참관, 직업체험, 준법교실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사 정연호

#### 교정위원 유실수 동산 조성

11월 17일 교정위원 유실수 등 다섯 명이 논산지소 청사 앞 잔디밭에 유실수를 심었다. 이날 행사는 소 내를 아름답게 가꾸 직원과 민원인에게 밝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일에 기여했다.

## NEWS



창원교도소



진주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대전지방교정청



청주교도소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광주지방교정청

###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최규철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실시

광주지방교정청은 12월 1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교통안전본부 외부강사를 초빙해 음주운전의 피해 사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교통사고 시 대응 방안 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는 교육이었다. 흉남식 청장은 앞으로도 직원 모두가 항상 경각심을 갖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광주교도소 / 교사 유병철

#### 광주지방교정청장 정책 현장방문

11월 29일 흉남식 광주지방교정청장이 광주교도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간부신고, 현황보고, 직원간담회, 구내 순시 순으로 진행됐고, 흉남식 광주지방교정청장은 과밀수용을 자체 해결하기 위한 광주교도소의 노력과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영희 소장은 "청장님의 방문과 격려에 감사하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교도소 / 교사 김용희

#### 사랑앓 연탄나눔 봉사

전주교도소는 12월 1일 사랑앓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직원들의 성금으로 마련한 연탄 2,000장은 전주연탄은행을 통해 교도소 인근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기증됐으며, 직원이 직접 연탄배달에 참여하기도 했다. 전주교도소는 매년 정기적으로 나누미장학회, 사랑앓 연탄나눔, 사회복지시설 위문방문 등을 실시하며 공직자로서 봉사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 순천교도소 / 교사 방상용

#### 보라미 준법교실 실시

순천교도소는 12월 13일, 순천 남산중학교를 방문해 보라미 준법교실 강의를 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강의의 주제는 법질서준수, 진로탐색 기회 제공, 변화하는 교정 행정에 대한 홍보였다. 직원들은 성금을 모아 학생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선물하는 등 청소년의 꿈을 키우고 교정행정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 목포교도소 / 교사 이정균

#### 도전! 청렴 골든벨 실시

목포교도소는 12월 4일 청렴직장분위기 확산을 위한 도전! 청렴 골든벨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례위주의 골든벨 문제를 출제해 청렴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직무수행 중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알아야 할 행동강령에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 군산교도소 / 교사 정임택

####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와 MOU 체결

군산교도소는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인성교육을 운영하고, 더 나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의 업무협약인 셈이다. 황인배 소장은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와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제주교도소 / 교사 홍지호

#### 사랑의 헌혈 실시

제주교도소는 12월 8일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도내 혈액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혈액수급 유지를 위한 것으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혈액원 관계자는 "제주교도소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꾸준히 헌혈봉사에 참여하고 있어 제주도 내 혈액수

급에 큰 도움이 된다"며 제주교도소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장흥교도소 / 교위 송판근

#### 보라미 준법교실 실시

장흥교도소는 12월 5일 장흥 회덕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보라미 준법교실을 실시했다. 이날 준법교실은 교도관 직업소개, 법 질서 준수 교육,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 그리고 자치수용동 등 교도소 내부 참관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학생들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새롭게 알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해남교도소 / 교사 송태준

#### 어울림 노래자랑 한마당 개최

해남교도소는 12월 5일 수형자 교화행사의 일환으로 '어울림 노래자랑 한마당'을 개최했다. 해남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으로 수용생활의 활력제공을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수용자 8팀이 참가했다. 홍순철 소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지원해주신 교정위원회 감사에 표하며 수용자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정읍교도소 / 교도 이인범

#### 정읍교도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전개

정읍교도소는 11월 30일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활동은 직원성금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서노회 지원금으로 추진됐다. 강도수 소장은 "정읍교도소는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재사회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나눔 문화의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NEWS

## 교정공제회

### 교정공제회 수익사업 다각화를 위해 정관 일부 개정 추진

교정공제회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춘천사업장에서 생산 중인 새싹삼의 판로 다각화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유망업종인 헬스케어업 등 총 44건의 사업 종목을 정관에서 정한 수익사업 범위에 신규로 추가, 지난 12월 4일 서면 개최한 제5회 임시대의원회에서 의결했다.

## 국군교도소

### 이천 레이디스앙상블 초청 위문공연 실시

국군교도소는 지난 12월 12일 교도소 내 종합성전에서 이천 레이디스앙상블을 초청해 수용자와 기간장병 대상으로 위문공연을 실시했다. '별', '바람이 분다' 등의 공연을 관람한 수용자들은 "추운 날씨 속 한줄기 위로가 되는 공연이었다"며 교도소 측에 감사를 전했다.



### 서울지방교정청 교감 이강표



서울

#### 청구인 권리구제·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에 기여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을 통해 약 206건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처리해 온라인 행정심판 답변율 100%를 달성했다. 또, 매달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 기준 평균 6개월에 달하던 행정심판 재결 기간을 2017년 기준 평균 90일로 단축해 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 대구교도소 교위 조병순



대구

#### 엄정한 형 집행·교정교화 업무에 기여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확인으로 신입사 예방에 힘쓰며, 2016년 2월부터는 수용자 독서 권장, 법률구조 절차 안내를 통한 권익 보호, 관심 대상자 개별상담을 통해 수용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2012년 7월에는 출정수용자의 특이사항을 사전 확인 후 밀착·포위 계호로 부정연락과 위해 가능성을 방지했으며, 재판 시작 전 법정 내 시설물을 철저히 사전점검 해 예방계호에 공헌하고 있다.

### 제주교도소 교위 전병호



대전

#### 교정사고 방지·민원행정 이미지 제고

보안과 접견업무 담당 중 민원인과 수용자 간 발생 가능한 부정행위를 원천차단하고 있다. 2015년 10월에는 중형선고에 불만을 품은 수용자 박ㅇㅇ가 외 부진로 시 병원에서 은닉한 유리 조각을 귀소 시 발견·회수해 교정사고 방지에 기여했다. 또한,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민원인 방문 시 불편함이 없도록 성의껏 조치하고 접견 시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늘 고민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친절한 태도로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군산교도소 시설주사 이해창



광주

#### 안전사고 예방·난방비 절감에 기여

시청과 국토부를 실득, 도시가스 연결공사 시기를 앞당겨 매년 1억 5,000만 원 이상의 난방비를 절약했다. 장애인 수용자 재활훈련관의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했고, 직원 복지를 위해 비상대기소 증축에 기여했다. 2016년 보안감사 시 민간인 출입방지·안전사고 예방·국가보안목표시설 유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보안감사 주요 수범사례로 선정됐다. 또 영화관람·산행 등 건전한 화식 문화를 조성하며, 지난 10년간 매월 인근 장애인·노인복지시설에서 음악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군산교도소



해남교도소



정읍교도소

# CONGRATULATIONS

## 교정 500호를 축하합니다!

2018년 1월, 월간 <교정>의 500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교정>은 1923년 <치형회보>라는 이름으로 창간된 후 지금까지 시대의 흐름을 따라 모습을 달리하면서 교정공무원과 함께 성장해 그 뜻을 더해 왔습니다. 500호를 기념해 이 책의 애독자인 교정공무원의 축하메시지를 소개합니다.



교정 스타그램에 참여해주세요.

교정 스타그램은 <교정>을 아끼는 교정공무원과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매호 정해진 주제에 어울리는 문구, 테마 컬러가 들어간 사진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지면을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다음호 테마컬러는 'SILVER', 주제는 '준비하는 삶입니다」

SILVER 컬러가 들어간 사진이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나의 작은 계획에 대한 글을 보내주세요.

신청 : correct2015@naver.com (문의 : 02-2110-3461)

11:11 100%

### 교정 스타그램

**김홍범 교사 청주교도소**

월간 <교정>의 5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매달 이 책을 통해 많은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용동 근무 중 짬을 내어 읽을 때 참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퇴직할 때까지 월간 <교정>이 계속 발행된다면, 900호 특집까지 볼 수 있겠지요? 교정의 여러 소식과 그리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독자를 미소 짓게 하는 <교정>. 다시 한번 500호를 축하드리며,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 ⋮

**최만호 교위 청주교도소**

월간 <교정> 500호 발간을 두 손 들어 축하합니다~ 책을 읽다가 동료의 글을 발견하면 마치 제 글이 실린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읽곤 합니다. 요즘 TV 드라마 중 '슬기로운 감빵생활'이 방영 중인데, 실제 교정 현장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지만, 대중에게 교정의 이미지를 새롭게 인식시킨다는 점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월간 <교정>도 교정 현장의 감동적인 사연을 담아, 국민께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매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 👤 ▼ ⋮

**홍지호 교사 제주교도소**

월간 <교정>은 매달 다른 기관 소식, 교정행정의 변화는 물론 동료직원들의 생각까지 알 수 있게 해준 책입니다. 항상 교정 가족과 함께 하며 오래도록 교정역사에 남기를 바랍니다. 5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 ▼ ⋮

11:11 100%

### 교정 스타그램

**우창호 교도 제주교도소**

요즘 영화 '1987'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감독은 이 영화 제작의 계기로 '사람들은 1987년을 기억할 때 어떤 것을 먼저 떠올릴까?'라는 의문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1976년을 기억할 때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누군가는 마오쩌둥 사망을, 또 누군가는 '태권V' 개봉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을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 교정공무원에게 1976년은 <교정>의 1호가 발간된 뜻깊은 해입니다. 2018년 1월, 500호를 맞이한 교정 소식지의 처음을 함께 추억해보고 싶습니다.

❤️ 👤 ▼ ⋮

**김경수 교사 김천소년교도소 보안과**

교정조직은 업무 특성상 1인 근무체제가 대부분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싸워야 한다는 점에서 외롭고 힘든 조직이죠. <교정>은 그런 우리에게 동료들이 현장에서 노력하는 모습, 현장 밖에서 가장으로 뚝을 다하는 훈훈한 모습까지 전해줍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견어내고 다시 '우리'라는 조직에 속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매개체인 셈입니다. 개인이라는 톱니바퀴가 모여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료들이 '우리'로 뭉칠 수 있도록 윤택유가 되어주는 <교정>의 500호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 ▼ ⋮

**김준엽 교사 김천소년교도소 직업훈련과**

월간 <교정> 500호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보다 한참 선배님인 월간 <교정>, 지금처럼 오래도록 만수무강하기를 기원할게요. 저도 매달 꼼꼼히 기사를 읽으며, 말없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정직 공무원들의 알차고 유용한 정보원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며, 다들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 ⋮

11:11 100%

### 교정 스타그램

**이수현 교위 군산교도소**

교정공무원의 애환과 역사가 깃든 교정지가 벌써 500호라니,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네요! <교정>의 5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교정지는 크기, 디자인이 달라지는 등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담아왔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더 알찬 내용, 기슭에 와 닿는 내용으로 채워져 요즘은 매달 교정지를 기다리는 애독자가 되었죠. 앞으로도 교정공무원을 대표하는 월간지로 남기를 바라며, 600호, 1000호 발간까지 이어지도록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 👤 ▼ ⋮

**정임택 교사 군산교도소**

제가 새내기 교정공무원일 때 월간 <교정>을 보고 '우리도 이런 월간지가 있구나'하고 신기해하던 기억이 납니다. 책의 발간 호수와 함께 제 근무경력도 늘어갔던 터라 동료 같고 친구 같던 책임인데, 벌써 500호라니요! 이 책에서 오래 잊고 지냈던 동기의 모습이라도 보는 날에는 추억에 잠겼고, 교정공무원으로서 꼭 알아야 할 알짜배기 정보만 뽑아서 소개해주셔서 매우 유용했습니다. 다른 소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들의 가족에 대한 기사를 볼 때면 '다들 이렇게 사는구나' 꼬덕이기도 했죠. 10년, 10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교정공무원 삶의 애환을 보듬는 대변인이 되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축하해요, 교정 500호 발간!

❤️ 👤 ▼ ⋮



# 귀하를 오늘 영화 같은 하루 속으로 초대합니다.

판에 박힌 일상, 반복되는 스트레스. 딱 하루라도 문화를 즐기며 힐링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 당신의 힐링을 도와드립니다.

공연관람, 간식 일체 제공 / 3인 이내의 동료직원과 함께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 접수 방법

- ① 근무지, 소속, 이름을 적어 mojcor@naver.com로 보낸다.
- ② 특별한 하루를 함께하고픈 동료가 있다면 함께 적는다.
- ③ 당첨 전화가 오면 흥겹게 받는다.

특별한 날 오래 기억할 수 있게 기념사진과 즐거운 이야기를 <교정>에 실어드립니다.

Passion.Connected.  
하나된 열정



패럴림픽 마스코트 반다비  
Paralympic mascot Bandabi

##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개최도시 | 평창, 정선, 강릉  
2018년 3월 그 순간,  
당신은 누구와 어디에 계셨습니까

## Para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3.9-3.18

Venues | PyeongChang, Jeongseon, Gangneung

Get your tickets and share the passion  
[www.PyeongChang2018.com](http://www.PyeongChang2018.com)

# 1923~2018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 교정

**01**  
교정공무원 문화교양지  
2018. January

## 500<sup>th</sup> STORY

교정공무원의 이야기를 전하고 더 행복한 교정부부를 만들기 위해 제작한 교정지가 2018년 1월 새해와 함께 500호를 펴냅니다. 월간 <교정>은 늘 지금처럼 교정공무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알리는 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